

문화 서울

2025 05 VOL. 219

문화+서울





예술힐링놀이터
5월 31일 토요일 정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야외·실내 공간이 엄마·아빠와 자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 놀이동산으로 변신한다. 5미터 높이의 대형 인형 퍼레이드극, 팝업 예술놀이터, 서커스 공연, 오감체험 현대무용극, 그림책 콘서트, 댄스필름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5 피크닉 in 나루
어느덧 4회째를 맞이한 광진구 최대의 야외 축제, '피크닉 in 나루'가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돌아왔다. 대체 불가 국민밴드 YB, 영원한 뮤지컬 디바 최정원, 따뜻한 음색의 뮤지컬 배우 박소연, 전통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류무웅단,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해줄 300여 명 규모의 광진구연합합창단이 참여한다.
5월 17일 오후 6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
02.2049.4700



소월아트홀에서 떠나는 유럽여행 콘서트
직접 떠나지 않아도 유럽의 문화와 감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진다.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의 흥미로운 이야기,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영상, 그리고 낭만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유럽여행 콘서트가 그 주인공. 5월 16일과 17일에 만나볼 수 있다.
5월 16일과 17일 | 소월아트홀
02.2204.6405



《론 뮤익》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현대 조각의 거장 론 뮤익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30여 년간 꾸준히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놀라움을 자아낸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다. 주요 창작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 작품과 스튜디오 사진 연작, 다큐멘터리 필름 2편 등 전체 24점을 소개한다.
7월 13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5·6전시실 | 02.3701.9500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라>
2004년부터 매년 새로운 시도로 어린이 관객을 위한 '첫 번째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 '신과 인간이 만나 함께 즐거워한다'는 뜻을 담아 제목을 붙인 이번 음악회는 우리 신화를 소재로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준다. 구도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박인혜가 연출·작창을 맡고, 이고운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36개월 이상 입장 가능.
5월 4일까지 | 국립극장 하늘극장 | 02.2280.4114



제46회 서울연극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대학로 일대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서울연극제가 진행된다. 올해의 슬로건은 '연·학, 극으로 잇다'로, 5월 7일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에서 개막을 알릴 예정. 공식 선정작 8편과 자유 경연작 30편이 무대에 오르며, 합평회와 관객리뷰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과 세부 일정은 서울연극협회 누리집(shea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마죽거리馬竹巨里》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를 활용해 청년 시각예술가의 작품을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는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새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마죽거리》는 예술과 자본의 관계 속에서 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본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청년 작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5월 24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9

《초현실주의와 한국근대미술》

20세기 한국 미술사에서 소홀히 다뤄진 근대미술 작가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시리즈 두 번째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고 있다. 인간 정신을 구축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예술로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비록 한국 미술사에서는 초현실주의가 주류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상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평생 초현실주의를 지향한 작가 6명의 작품 및 아카이브 300여 점을 소개한다.

7월 6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 02.2022.0600

8

오페라

《The Rising World: 물의 정령》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가 창작오페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가운데 예술의전당이 신작 오페라를 선보인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에 관한 재앙이 계속되는 가상의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동서양의 서사를 융합하고 현대와 전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적 혁신을 꾀했다. 공주 역으로 소프라노 황수미, 장인 역에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제자와 왕 역할로 테너 로빈 트리슬러와 베이스바리톤 애슐리 리치, 물의 정령으로는 카운터테너 정민호가 출연한다. 스티븐 카르의 연출작이며, 스티븐 오즈굿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5월 25일과 29~3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668.1352

10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 특별전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 매체 특화 공립미술관이 문을 연다. 도봉구 창동에 등지를 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빛으로 그리는 그림인 사진의 픽셀을 형상화한 건축 또한 인상적. 5월 29일 개관과 동시에 특별전 《광채: 시작의 순간들》과 《스토리지 스토리》를 연중 개최한다. 또한 전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 아니라 한국 사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작품과 자료에 관한 연구·수집·보존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11

뮤지컬 《드라큘라 치과》

동명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드라큘라 치과》를 가정의달을 맞아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자정에만 열리는 비밀 치과에서 펼쳐지는 유쾌하고 특별한 모험이 무대 위에 재현돼 관객에게 상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노원어린이극장
02.2289.3451

12

《1848, 무신년 아진연》

창경궁에서 가장 은밀한 전각인 통명전. 조선의 24대 왕 현종이 1848년 이곳에서 순원왕후의 육순과 신정왕후의 망오를 기념해 성대하게 연 연회 '무신년 아진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해 대취타·검기무·시조·처용무·수제천을 연행한다.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 창경궁 통명전 | 02.580.3300



13



〈연희 시음회〉
연희문화창작촌과 서대문구 청년베프의 협업으로 문인 출신 뮤지션과 연희문화창작촌 입주작가가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성기원(시인, 전 3호선 버터플라이)·김뜻돌·김일두 등이 참여한다.
5월 22일 오후 4시 | 연희문화창작촌 | 02.324.4600



‘어디나 스테이지’ 개막 축제
종로 곳곳 어디나 무대로 삼아 6월부터 12월까지 펼쳐질 공연의 포문을 여는 ‘어디나 스테이지’ 개막 축제가 5월 8일과 9일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시민 누구나 퇴근길 광화문광장에 들르면 라퍼커션·하모나이즈·천하제일탈공작소·뮤르·김보아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펼치는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SCENE

싱그러운 계절,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10
만나다
사람을 연결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들
서울서커스페스티벌

20
즐기다
함께하며 문화로 성장하는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24
듣다
해외 아티스트가 말하는
서울, 그리고 서커스페스티벌

29
나누다
현대 예술로서 서커스를 이야기하다



COVER STORY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에서 이만큼 서커스와 잘 어울리는
장소가 또 있을까? 노들섬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서커스를 더욱 서커스답게
즐거보자. 5월 3일부터 5일까지 드넓은 서울
하늘 아래, 아찔한 서커스의 순간이 펼쳐진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송형중 편집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안미영 나혜린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5년 5월 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싱그러운 계절,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가정의달 5월, 꿈같은 휴일을 맞아 환상적인 서커스
세상이 펼쳐진다. 파아란 한강 물결 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노들섬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감탄의 순간을 만나보자.



*내용에 등장하는 축제 참가자와 단체 이름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불구하고
원활한 축제 홍보와 안내를 위해 홍보물의 표기를 따랐습니다.

사람을 연결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들 서울서커스페스티벌

프로그램이 한층 풍성해졌다. ‘서커스 링크&점프’를 주제 삼아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돌아온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줄 5월의 서커스 세계를 미리 만나보자.

가정의 달이자 싱그러운 풀잎이 도시를 가득 채우는 5월, 따듯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계절은 가벼운 외출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나들이 가기 좋은 5월, 봄날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축제가 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다.

지난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축제 장소를 노들섬으로 옮기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틀 중 하루는 갑작스럽게 비가 왔지만 3만여 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노들섬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날이었으며, 축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상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축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들섬에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해외 서커스 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고, 프로그램은 한층 풍성해졌다.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돌아온 서울서커스페스티벌. 평범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줄 5월의 서커스 세계를 미리 만나보자!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삭막한 도시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한강 근처에 가면 뽁뽁한 빌딩 숲 사이에서 유독 넓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무와 풀잎 사이를 거닐며 자연을 느낄 수도 있다. 늘 많은 이들이 찾아 휴식과 여가, 문화와 예술을 두루 누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한강의 풍경과 여유를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들섬이다. 드넓은 잔디마당은 물론 실내

공연장과 전시실까지 갖춘 노들섬은 예술과 자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노들섬에서 관람하는 서커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서커스는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면 위 정해진 무대를 넘어 공중으로 도약하고, 하늘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곡예사의 모습은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레 위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서커스는 실내 공연장보다 천장 없이 개방된 야외에서 감상할 때 더욱 빛난다. 이미 ‘노을 맛집’으로 잘 알려진 노들섬은 탁 트인 전경과 넓은 하늘,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널찍한 잔디마당 위, 드넓은 서울 하늘 아래, 그리고 주변을 감싸 흐르는 한강을 배경으로 아찔한 서커스의 순간이 펼쳐진다. 서울에서 이만큼 서커스와 잘 어울리는 장소가 또 있을까? 노들섬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서커스를 더욱 서커스답게 즐겨보자.

서커스, 연결하고 확장하며

올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서커스 링크&점프Circus Link & Jump’라는 주제로 한계를 넘어 연결하고 확장하는 서커스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서커스의 양상을 여섯 주제에 담아 섹션을

→ 2024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제작공연 <옛, 다!>





구성했다. 서커스는 본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예술이다. 곡예사의 부단한 노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더해져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비로소 서커스는 완성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커스 자체도 새로운 장르, 주제, 접근 방식으로 확장하며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

#서커스애슬레틱

신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슬아슬한 묘기와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득한 섹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집중하는 힘이 관객 모두 숨을 죽이게 만든다. 서커스 본연의 묘미인 스릴과 박진감은 물론,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짜릿한 긴장감도 함께 느낄 수 있다.

#저글링 #밸런스 #시가박스

서커스 디 랩 <그림에도 불구하고>

4일 오후 4시/6시

#프랑스 #저글링 #즉흥공연

콜렉티브 프로토콜Collectif Protocole

<원샷ONE SHOT>

3일 오후 6시, 4일과 5일 오후 7시 30분

#차이니스 #저글링 #드라마

휠러스 <유스 어게인>

4일 오후 2시 30분, 5일 오후 4시

#치어리딩 #애크러배틱 #파워풀

레인보우 치어 <치어리딩 퍼포먼스>

3일 오후 4시 30분, 4일 오후 4시 15분

←← 콜렉티브 프로토콜 <원샷> ©Collectif Protocole

← 휠러스 <유스 어게인> ©휠러스

#서커스제로그래비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순간, 서커스는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섹션의 작품은 그네·밧줄·사다리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하늘을 무대로 만든다. 아찔하게 떠 있는 곡예사의 움직임은 오히려 공중에서 더 유연하고 자유로워 보이며, 지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을 선사한다.

#줄다리기 #파워줄 #남성듀오

포스 <통제>
4일과 5일 오후 5시

#스페인 #공중그네 #유령

UTA서커스UTAcirc <노 마탈라스No Mátalas>
4일 오후 1시, 5일 오후 1시 30분

#프랑스 #로프 #예술성

컴퍼니 아페사COMPAGNIE APPESA
<나의 끈DANS MES CORDES>
3일 오후 4시, 4일과 5일 오후 4시 30분
→ 포스 <통제> ©FORCE-ARTECH
↓ 컴퍼니 아페사 <나의 끈> ©Karine Pietri



↑ 컨컨 <도시조류도감> ©박김형준
← 64줄 <목림삼> ©안산거리극축제

#그린서커스

도심 속 자연의 공간, 노들섬과 어우러지는 생태적인 메시지를 담은 서커스도 만나볼 수 있다. 동식물을 표현하는 움직임과 자연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조류 #에어리얼 #서커스극

컨컨 <도시조류도감>
4일 오후 2시 30분, 5일 오후 3시 30분

#식물 #어린이 #밸런스

64줄 <목림삼木林森>
3일 오후 5시, 4일 오후 3시 30분



#서커스클라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서커스. 이 섹션에서는 음악·미술·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만난 다채로운 서커스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이는 익숙한 형식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서커스의 현재를 보여준다.

#음악 #디아블로 #클래식

준디아 <서커스 클래식>

5일 오후 4시/6시

#일본 #음악 #저글링

쿠덴키도 Kuutenkidou <떠다니는 선율 Floating Tune>

4일과 5일 오후 2시/5시 30분

#시각예술 #색칠하기 #입체

이정윤 <액체 고양이의 다정한 서커스>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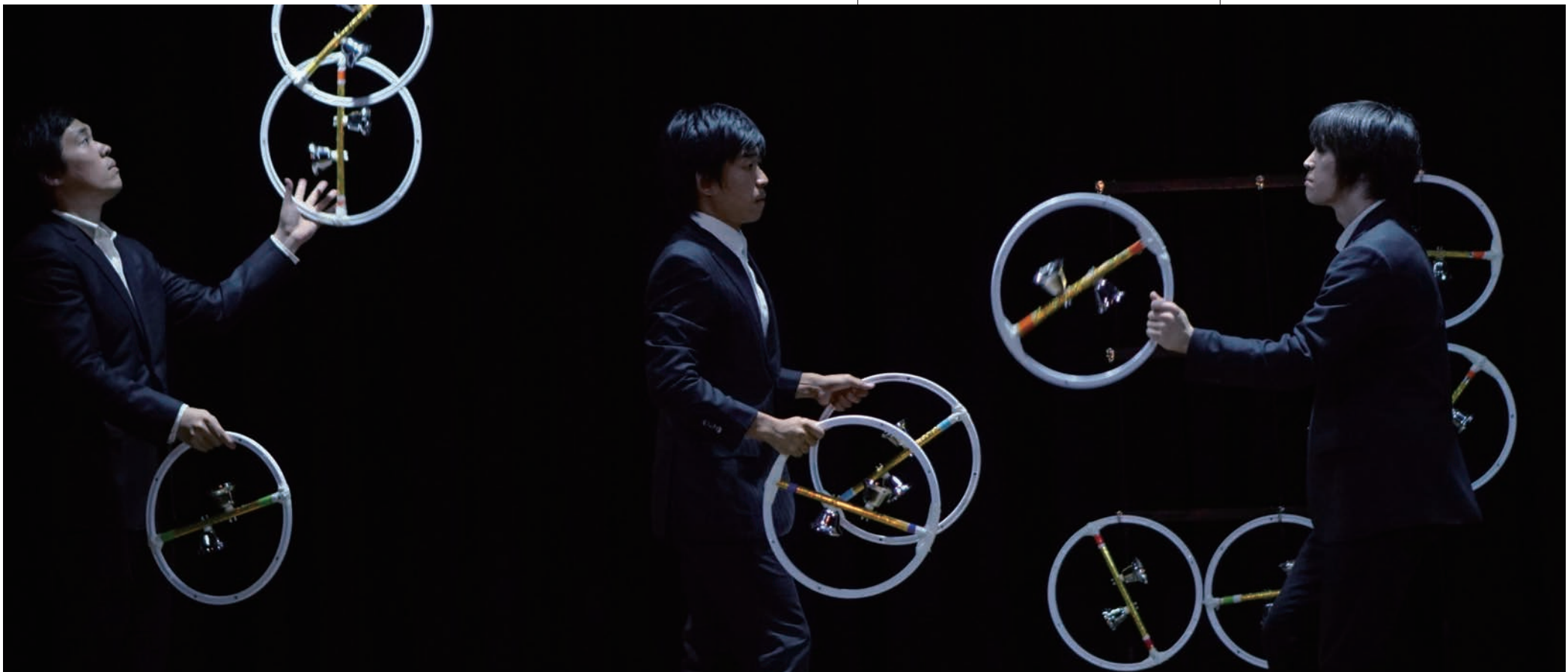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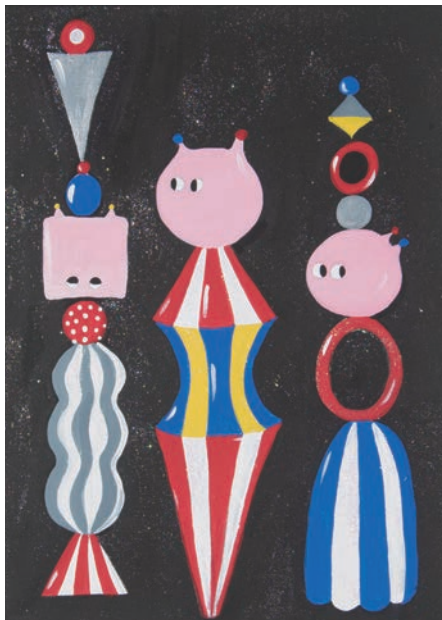
#영화 #애니메이션 #휴식

서커스 관련 영화 상영

3일부터 5일까지



ㄹ 준디아 <서커스 클래식> ©서커스 디 랩
→ 쿠덴키도 <떠다니는 선율> ©Kuuten
↓ 이정윤 <액체 고양이의 다정한 서커스> ©이정윤



#서커스의민족

사실 우리는 모두 서커스의 민족일지도 모른다. 이 섹션은 전통연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커스적 요소를 새롭게 조명한다. 줄타기·버나놀이·사자탈춤·널뛰기 등 연희 속 다양한 제주에서 서커스의 기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차이니스 #소리 #이등형

봉앤줄 <외봉인생>

5일 오후 2시 30분

#전통연희 #제주 #재담

예인집단 아라한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서커스 외전>

4일과 5일 오후 6시 30분

← 예인집단 아라한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서커스 외전> ©예인집단 아라한

#함께하는서커스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몸소 체험하며 서커스를 직접 느껴보자! 이번 축제에서는 외줄타기·접시돌리기 등 서커스 기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부터 저글링 공과 밸런싱 스틱을 직접 만들어보는 공작소까지 즐겨볼 수 있다. 또한 무대와 객석이 허물어지고, 관객이 공연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공연도 마련된다.

#트램펄린 #어린이 #탄성

화이트큐브 프로젝트 <닥터트램과 봉봉>

4일 오후 2시, 5일 오후 3시

#밸런스 #어린이

공간 서커스살롱 <해피해프닝>

3일 오후 2시

#벨기에 #홀라후프 #여성듀오

홉스코치Hopscotch <나중에 만나요 Catch You Later>

3일 오후 3시, 4일 오후 6시

#체험 #만들기 #놀이터

공간 서커스살롱 <서커스 예술놀이터>

4일과 5일

#체험 #체조 #유연성

시온서커스학교 <함께 배우는 서커스 체조>

3일 오후 3시 30분, 4일 오후 3시,

5일 오후 3시 30분



서커스의 어제와 오늘, 특별히 주목할 두 작품

아직 어떤 공연을 봐야 할지 고민된다면, 이번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두 작품에 주목해보자.

첫 번째 공연은 프랑스에서 온 서커스 팀 콜렉티브 프로토콜의 <원샷ONE SHOT>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작품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다섯 편 가운데 하나다. 이 팀은 2012년 활동을 시작해 저글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관을 구축해왔다. 특히 전통적인 무대 공간에서 벗어나 도심 속 거리, 광장 등에서 새로운 공연을 펼치는 ‘장소 특정형’ 공연을 추구한다. 매번 공간 특성에 맞게 새롭게 창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 특정형 공연은 이른바 ‘낯설과 변주의 예술’이다.

이번 축제에서 선보일 공연 역시 오직 노들섬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버전의 <원샷>이 될 것이다.

공연이 시작되면 저글러 5명과 연주자 1명이 넓은 잔디마당을 누비며 저글링을 활용한 즉흥 퍼포먼스를 펼친다. 노들섬의 거리, 벤치, 가로등을 비롯한 여러 구조물, 심지어 관객까지도 공연을 이루는 요소로 활용되며,

< 공간 서커스살롱 <해피해프닝>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월 5일 저녁에는 이들이 더욱 특별한 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콜렉티브 프로토콜과 한국 아티스트들이 공동 제작한 <원샷>을 선보이는 것이다. 콜렉티브 프로토콜은 지난 1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며 각국의 아티스트와 만나 자신들의 저글링과 즉흥극 노하우를 나누고, 협력을 통해 완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창작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이번 축제에서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5명의 한국 아티스트와 만나 한국과 프랑스의 감각이 섞인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인다.

두 번째는 전통연희 작품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서커스 외전>이다. 서커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빼어려와 빅탐, 공중그네 등 어딘가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서커스의 기원을 훨씬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저잣거리에서 묘기와 재담으로 사람들을 모으던 유랑 예인들, 그들이 펼치는 재주와 놀이가 지금의 서커스와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에크러배틱은 살판, 디아블로는 죽방울, 접시돌리기는 버나놀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예부터 우리가 즐겨온 놀이 문화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2019년 숭례문놀이보존회의 공연부터 2024년 기획·제작한 작품 <옛,다!>까지 다양한 전통연희를 축제 무대에 올리며 우리 민족 고유의 서커스를 지속적으로 조명해왔다.

올해는 예인집단 아라한의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서커스 외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통연희에서 찾은 서커스의 기원을 들여다본다. 공연에는 버나놀이, 살판, 죽방울, 사자탈춤까지 그 시절 유랑 예인들이 선보인 기예가 총출동한다. 무대 위 재담꾼은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연희와 서커스의 많은 꼴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한다. 작품은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희를 현대 서커스의 관점으로 풀어내며 잊고 있던 우리 민족의 흥을 일깨워준다.

서커스는 아찔하게, 축제는 안전하게

서커스를 보며 아찔한 스티를 느끼는 건 관객의 마음뿐, 축제 자체는 조금의 불안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여러 방면에서 꼼꼼한 대응책을 갖췄다. 먼저, 해마다 빠르게 찾아오는 무더위에 대비해 실내의 곳곳에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 때 이른 더위와 축제 열기에 지친 관객은 마켓틀 ‘휴식존’과 노들갤러리 1 ‘영화상영존’에서 시원하게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또 노들섬 입구에 위치한 종합안내소에서 따가운 햇볕을 가려줄 종이 모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온열질환에 대비한 응급 부스도 마련된다.

봄날의 비 소식도 축제 운영에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축제 기간에 비 예보가 있는 경우, 공연자와 관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소 변경이 가능한 공연은 실내 공간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가 진행되는 3일간 노들섬에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만큼 현장의 안전과 질서 관리 역시 강화했다. 바닥에 안전선을 명확히 표시하고, 안내요원을 확대 배치해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을 대비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만큼 더욱 다양한 관객이 축제를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도 정비했다. 축제 홍보물과 누리집, 소셜미디어 채널에 접근성 정보를 안내해 공연마다 대사가 있는지, 관객 참여가 포함되는지, 갑작스러운 소리나 놀람 요소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축제 정보를 사전에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에는 ‘어르신 안내소’를 별도로 운영한다.

도시와 자연이 맞닿은 노들섬에서 축제가 열리는 3일간 다채로운 서커스의 세계가 펼쳐진다. 올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여러 분야와 연결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축제를 찾은 모든 시민이 서커스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하며 낯설지만 색다른 감동을 마주하기를 바란다.

< 홉스코치 <나중에 만나요> ©Kalimba Mendes

함께하며 문화로 성장하는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

서커스는 우리 인생과 닮아 있다. 시련과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 수행과 실행의 과정, 타인과의 관계 등 살아가며 마주하는 것들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서커스를 경험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내면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몸의 기예를 다루는 작품을 비롯해 내 몸으로 직접 서커스를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이렇듯 지난 몇 년간 수준 높은 공연과 경험을 시민에게 선사하며 서커스가 문화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화’란 그 가치와 필요를 공감하기에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공동의 것이다. 소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함께 경험하는 것 말이다. 그렇기에 동경이 가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서커스 공연과 함께 서커스를 직접 경험하고 그 정신을 함께 누리는 소통의 균형이

중요하다. ‘공간 서커스살롱’이 ‘영똥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서커스 커뮤니티’로서 공연 활동과 함께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서커스’는 기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좁고도 넓은 범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예를 훈련하고 실행하는 이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좁은 범위의 서커스부터,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새로이 자신을 다독이며 훈련을 이어나가는 태도로서 넓은 범위의 서커스까지가 모두 ‘서커스’라는 것이다. 특히 넓은 의미의 서커스는 인간의 인생과 연관이 있다. 시련과



실패를 마주하는 태도, 수행과 실행의 과정, 타인과의 관계, 내적인 의지와 믿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서커스의 핵심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래서 공간 서커스살롱이 운영하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적은 ‘재미있는 실패’다. 단번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서커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서커스는 수많은 시도와 훈련, 수행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처음부터 실패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심각한 좌절에 빠진다면 다시 행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다. 마음의 근력도 차근차근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즐겁고 의연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경험이 그 시작이기를 바란다! 당장 잘하든 못하든 무엇이 중요한가. 그저 즐겁기만 바랄 뿐이다.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번 축제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마치 호감이 있던 상대와의 첫 데이트와 같다.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했던 서커스를 직접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그 즐거움이 우선이다.

‘서커스 안경’으로 들여다보는 일상

올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서커스 놀이터’와 ‘서커스 공작소’로 나뉜다. ‘서커스 놀이터’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서커스 기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린이 친구들이 서커스를 놀이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은 '거창한' 서커스를 '나도 할 수 있는' 서커스로 치환한다. 자기 몸을 움직여 서커스를 수행해내는 경험은 분명 예술적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여기엔 외형은 어른인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 친구도 포함이다. 용기를 내 한번 체험해보는 것은 어떤가? 혹시 엄마·아빠라면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경험을 추천한다.

'서커스 공작소'는 좀 더 깊이 일상에 침투하기 위한 노력이다. 풍선이나 나무 막대기, 심지어 돌맹이까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직접 서커스 놀이 도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보는 시간을 안내한다. 사부작사부작, 꼼질꼼질 만든 나만의 도구는 일상을 더 엉뚱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스스로 경험하는 시간은 '서커스를 보는 눈'을



번쩍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네 일상을 '서커스 안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많은 서커스가 숨어 있다. 일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커스가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며 하얀부분만 밟기, 떨어지는 빗꽃잎 잡아채기, 엄마·아빠 품에 뛰어들이가 얼마나 서커스와 연관이 있는지 아는가! 나만의 도전, 재미,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성까지. 서커스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펼쳐져 있다. 물론, 수준 높은 기예를 다루는 좁은 의미의 서커스의 본질 역시 이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

이처럼 서커스는 참으로 다양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서커스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서커스는 우리의 삶을 향해 있다. 아름다운 서커스 공연이 당신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가벼이 참여한 서커스 체험이 새로운 동기 부여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의미를 지니는, 서커스 문화 공존을 위한 장이다. 화려하고 멋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서커스부터, 당장 바로 내 앞에 있는 서커스까지. 또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지워 다양한 질감을 선보이는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닿기까지. 국내 서커스 예술의 여러 층위 맥락이 한데 뿜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서커스 문화예술의 장이 바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다.

올해도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서 어린이(어른의 탈을 쓴 어린이도 환영!) 친구들이 서커스라는 놀이와 재미있고 엉뚱하게, 긴장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아름답고 신나는 공연과 함께 감탄이 넘치는 날을 보내기를, 또 직접 서커스에 도전하며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저마다 자신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서커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커스가 문화로 꾸준히 성장해 이처럼 건강하고 엉뚱한 경험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해외 아티스트가 말하는 서울, 그리고 서커스페스티벌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해외 아티스트에게 공모의 문을 열었다. 31개국 116편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다섯 팀을 소개한다.

- 서울서커스페스티벌 해외 작품 공모open call을 알게 된 계기
- 팀을 소개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 현대 서커스의 매력이란
-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 이번 축제에 거는 기대

컴퍼니아페사 COMPAGNIE APPESA

프랑스

● 국제 서커스 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이전에 서울서커스페스티벌에 참가한 동료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천해줬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공지를 확인하는 순간, 곧바로 지원 방법을 확인했다.

●● ‘울림resonance’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관객의 감정을 깊이 울리는 작업을 지향한다. 신체 예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작품을 통해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는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 현대 서커스는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이다. 전통과 혁신, 신체성과 시적 감성을 결합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한다. 서커스에는 말없이도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힘이 있으며, 움직임과 위험risk, 상상력을 통해 보편적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매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예술, 기술, 역사가 어우러진 창의적인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라 상상한다.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깊은 문화적 뿌리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도시다.

●●●● 전 세계의 관객과 예술가들을 만나고, 서로의 작업을 나누며 깊이 있는 교류를 기대한다. 풍부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한국의 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자극을 받고, 도전하고, 깊은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Romain Vandromme



©Collectif Protocole

공모를 접하고 우리의 작품 <원샷ONE SHOT>으로 지원했다.

●● ‘독특하고 대중적인cheper and popular’이라는 표현은 우리 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perché를 거꾸로 만든 말인 ‘cheper’는 프랑스 속어다. 뭔가 이상하고, 현실에서 살짝 벗어난 듯한, 몽환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뜻한다. 우리가 하는 작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난 실험적인 성향이 강하고, 살짝 비틀린 감각이 있다. 반면에 ‘popular’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을 의미한다. 우리는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고, 어떤 배경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저글링 작업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다. 기이하고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며 시적인 동시에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경계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팀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에게 서커스는 유쾌한 원동력이다. 대중예술이자 위험을 감수하는 공간이며, 끊임없는 질문과 실험이 이어지는 장이다. 현대 서커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 있는 예술 형식으로, 춤·연극·퍼포먼스·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포용한다. 여러 형식을 융합하고 경계를 넘는 것이야말로 서커스라는 예술이 가진 표현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 2018년 서울에 방문했던 당시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높은 현대식 빌딩과 좁고 활기찬 골목길의 대비, 오락실, 그리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강. 서울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인상의 도시다.

●●●● 무엇보다도 영감을 주는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과의 만남, 우리의 작업 방식을 전하는 과정, 공연을 통해 관객과 나누게 될 순간들까지. 또한 세계 각지에서 온 아티스트들과의 교류, 그리고 페스티벌이 지닌 에너지를 함께 나눌 시간도 고대하고 있다.



©Silvia Variani

컬렉티브 프로토콜 Collectif Protocole

프랑스

● 2018년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 후 그간 방문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제 공모 정보를 꾸준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었고, 2025년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쿠텐키도 Kuutenkidou

일본

-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인 휠리스의 인스타그램(@cyrwheel_baby_minyoung)을 통해 공모 소식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해 대만에서 만난 사이다.
- ‘케도orbit’를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팀 이름인 ‘쿠텐키도Kuutenkidou’에서 ‘키도kidou’란 ‘케도軌道’를 의미한다. 이는 저글링 예술에 담긴 다양한 요소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단어다.
- 현대 서커스에서는 테크닉이 단순한 형식을 넘어 다양한 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
- 서울은 문화적으로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 우리는 많은 예술가·스태프 그리고 관객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Kuten

홉스코치 Hopscotch

벨기에

- 지난해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한 와이즈 폴스Wise Fools 동료들을 통해 처음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알게 됐다. 그들이 축제에 참여하며 올린 게시물을 보고나서 자연스럽게 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구독했고, 공모 소식이 올라오자마자 ‘이번이 바로 우리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다.
- 우리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톡톡 튀는, 생동감 넘치는poppy’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작업은 대담하고, 리듬감이 넘치며,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홉스코치 서커스Hopscotch Circus는 손으로 버티고 선 채로 선명한 색상의 홀라후프를 돌리며 생동감 있는 움직임에 정확성과 존재감을 결합해 관객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 현대 서커스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설명 없이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점, 생생한 기술, 유쾌한 캐릭터, 그리고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진다. 마법 같은 순간이라면, 단순한 묘기를 보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대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한다. 예술가 혹은 관객과 마주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있다. 그게 바로 이 장르의 매력이다. 그래서 살아 있고, 즐겁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

- 우리는 서울을 아직 방문해본 적이 없다. 서울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형성된 정도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활기찬 도시, 독특한 건축물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음악과 예술이 넘치는 곳일 것 같다. 에너지와 문화, 창의력으로 가득한 도시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 우리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경험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지 관객과 교감하고, 우리의 작업을 공유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렌다.



©Ben Bryninx

UTAs서커스UTAcirc

스페인

● 공연예술박람회에서 ‘카탈루냐 아트Catalan Arts’라는 기관을 통해 서울서커스 페스티벌에 대해 알게 됐다. 몇몇 카탈루냐 예술가들이 한국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독하게 됐다.

●● ‘스푸키 프렌들리Spookyfriendly’.

좀 이상하고, 좀 유령 같고, 아주 많이 친근한.

●●● 현대 서커스의 고유한 매력은 무한한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특성을 창작 과정에 담아내며,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 사실 우리는 서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 점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저 서울을 탐험하게 될 날이 무척 궁금하고 기대된다.

●●●●● 우리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축제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데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며,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고, 한국에서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우리의 작품을 한국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를 얻게 돼 기쁘며,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고자 한다. 물론, 이번 경험이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기회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고, 이후에도 다시 한국에 올 수 있기를 소망한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보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 예술로서 서커스를 이야기하다

서커스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축제를 기다리며 오늘날 서커스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커스는 여전히 현대적인가,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의 질문

최재훈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2팀장

서커스는 몸을 괴롭혀 얻은 극단적 신체의 기술, 즉 기예의 예술이다. 하지만 인체 유연성을 강조해 결국 일종의 신체 왜곡처럼 보이는 ‘컨토션contortion’이라는 서커스의 경이로운 기술은 여러 번 보면 흥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최근 서커스 예술가들은 첨단 기술과 결합한 엔터테인먼트 쇼를 만들거나 무용·연극·미술 등 순수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서커스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오늘, 즉 현대의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최신 경향을 우리는 컨템퍼러리 서커스 또는 현대 서커스라 부르는데, 현대적이라는 의미의 ‘컨템퍼러리’란 현재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성이라고도 불린다. 관객과 동물, 신체 변형된 사람 등 신기한 것들을 나열해 보여주는

근대 서커스의 형식에서 벗어나, 이 장르가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는 인식 변화를 이끄는 현대 서커스는 신체 숙련을 통한 미적 감각을 전달하는 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해 그 영역을 넓히며 진화한 현대 서커스는 최근 한국 공연예술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커스 예술을 하나의 장르로 확장하고 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2018년 시작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지난 7년간 121편 공연을 발표하고 20만 명이 관람한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서커스 예술축제이며, 서커스 공연 플랫폼이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생겨난 후 서커스 공연은 전국 축제로 확산하고 있다. 서커스는 최근 거리예술의 주된 경향이기도 하다. 관객의 집중 시간이 길지 않은 거리극의 특성상 짧고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서커스 공연이 이에 적합하고 특히 ‘에어리얼’이라 불리는 공중 퍼포먼스는 시야 제한 없이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커스를 향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면서 동춘서커스나 ‘서커스1세대’로 불리는 안재근 곡예사 등 근대 서커스의 뿌리가 된 공연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서커스 기예를 무용이나 연극과 결합해 새로운 공연예술로 확장해 활동하는 현대 서커스 단체의 기량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커스 콘텐츠에 따라 빅 탑이나 서커스 텐트, 혹은 극장과 야외를 오가며 그 다양성이 확보된 해외의 현대 서커스와 달리 한국의 현대

서커스는 주로 거리예술축제에서 대부분 작품을 선보이는 실정이다.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2024년부터 노들섬 내 극장인 라이브하우스에 실내 서커스 공연을 유치하면서 서커스가 거리예술의 하위 장르가 아니라 실내외 어디로든 확장될 수 있는 고유한 현대예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폭넓은 관객을 수용하고자 공연장에서의 서커스 공연 콘텐츠도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담았다.

눈에 보이는 기예보다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동작에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는 현대 서커스는 새로운 관객의 새로운 취향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우리의 서커스는 과연 현대적인가? 궁금한 관객이라면 가장 현대적인 서커스의 이야기를 축제 형식으로 보여주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자 답이 되어줄 것이다.

‘서커스를 읽는다’는 것

손옥주 공연학자

2022년 여름, 유럽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전문지 중 하나인 『테아터 데어 차이트Theater der Zeit』에서는 ‘변화하는 서커스: 컨템퍼러리 서커스Circus in flux: Contemporary Circus’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행한 바 있다. 컨템퍼러리 서커스에 관한 인터뷰와 기사·학술논문 등 17편의 글로 구성된 이 책은 서문에서부터 그동안 공연예술 장르로 조명되지 못한 서커스에 관한 동시대적 고찰을 담아내고 있다. 서커스의 재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이 시도는 무엇보다도 서커스가 대중의 여흥을 위한 소비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오늘날의 사회를 반영하는 예술 장르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FOCUS	나누다
바야흐로 서커스는 기예의 완결성에서 비롯된 스펙터클을 특징으로 삼는 전통 서커스 형식을 넘어서 콘셉트 중심의 창작 언어로 확장돼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소위 ‘컨템퍼러리 서커스’라 불리는 새로운 다학제적 경향이 공연예술계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관람 대상에 머물러 있던 서커스는 점차 관객의 ‘읽기’를 추동하는 텍스트로서 거듭나게 됐다. 관객 저마다의 경험과 관점, 기억 등을 매개로 ‘서커스를 읽는다는 것(Reading Circus)’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커스 작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나? 만약 성공하는 서커스 혹은 도약하는 서커스가 아닌, 실패로 점철된 서커스 혹은 정지하는 서커스와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양상의 서커스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받아 ‘한국 컨템포러리 서커스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컬렉티브 방식의 서커스 현장 리서치 또한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 안에서 서커스 창작 현장과 이론을 매개하는 연구를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커스가 갖는 동시대 예술로서의 의미를 탐색하는 한편, 국내 공연예술학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 연희가 서커스 무대에서 꽃을 피울 때
	이창훈 예인집단 아라한 대표
	올해도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는 익숙한 질문과 다시 마주한다. “전통 연희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낼까?”, “2025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무대에서는 전통이 어떤 방식으로 꽃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어가고자 하는 연희의 맥락을 지키면서 오늘의 무대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 숨 쉬게 할 수 있을지를 향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연희는 본래 ‘움직임의 예술’로 길 위와 마당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왔다. 사자춤, 줄타기, 탈춤, 풍물놀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며 공동체의 숨결을 타고 몸짓과 가락, 리듬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그것은 예술이자 의례였고, 놀이이자 삶이었다.
	서커스 또한 몸으로 말한다. 놀라움과 긴장, 웃음을 유발하며 관객을 끌어당긴다. 전통 기예는 공동체와의 연결을 중시하며 관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확장한다. 반면

서커스는 시각적 경이로움과 기술적 도전을 통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연희는 마당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서커스는 독립된 공간에서 쇼 연출의 정교한 세계를 펼쳐왔다. 형식과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두 장르 모두 움직임을 중심에 두고 관객의 몰입을 끌어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라한의 초기작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²⁰¹⁸에서는 전통예술 전공자와 서커스 아티스트가 협업을 이뤘다.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창작자로서는 전통음악의 리듬과 서커스 기예의 호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한 무대 안에서 따로 노는 듯한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 오락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은 오히려 부차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첫 발표 이후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편해나갔다. 재담의 웃음 구조를 분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본을 재구성했다. 관객 참여를 유도해 수동적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고, 전국 각지의 농악 가락을 수집해 지역 고유의 리듬과 생동감을 담아냈다. 그렇게 모인 가락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품은 새로운 음악적 질감을 만들어냈고, 전통 기예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그렇게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는 해마다 새롭게 탈바꿈하며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고, 2026년에는 시즌 2를 발표할 예정이다.

처음 이 원고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전통 연희와 서커스가 하나의 새로운 공연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였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객도, 창작자도 그 가능성을 함께 실험하는 중이다. 이 길의 끝에는 두 장르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 우리만의 움직임과 리듬으로 빚어낸 새로운 공연 형식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전통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체성을 오늘의 무대 위에 다시 호흡하게 하는 일이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가려는 시도, 그리고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라고 생각한다.

A S S O C I A T E D	예술가의 진심 양정욱, 오늘도 균형을 기웁니다 예술인 아카이브 함윤이 김도현 페이퍼로그 무대기술팀 이종훈 인사이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다정한 아트라운지' 트렌드 종이책의 귀환, 텍스트 세계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찾아서 해외는 지금 대만의 문화 정책, 더 많은 이들이 공정하게 누리도록
--	---

양정욱,

매일 비틀거려도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사람.
양정욱은 쓰러질 듯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
손끝으로 균형을 이어 붙인다. 결국 그의 조각엔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남는다.

오늘도 균형을

**‘올해의 작가상 2024’ 수상을 축하합니다.
작가님께 올해의 작가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누어 받을 축하를 한 번에
받은 기분이에요. 이번 기회로 ‘올해의 작가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상인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작가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느낌이에요. 당분간은 작가로
사는 삶이 더 질어질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작업을 이어오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에는 항상 반대편의 일이 있었고, 창작에
몰두할수록 가족을 챙길 여유가 부족했죠. 풍요
속에 마음이 빈곤해지는 때도 있었고요. 끝내 저는
모든 일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잘 차려진
한 끼의 식사를 감사히 먹고는 잊어버린 뒤, 다음
끼니를 준비하는 것처럼요. 다음 끼니는 제 취향과
다를 수도 있고, 건너뛰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기대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슬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읍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의 작업 여정을
돌아보게 됐나요?** 제 작업은 수십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글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내가
“비슷하다”고 말하면, 묘하게 안심이 돼요.
“양정욱답다”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에서도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작업은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물론 기술이나 연출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어요. 시대나 공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죠. 소재 또한 바뀌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들로 시선이 넓어졌고, 피곤과 불안,
혼란, 갈등 같은 감정들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러나 모든 작업 뒤에는 공통의 질문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움직이고, 무엇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들을 알아야 하는가.’ 향후
작업의 궤적은 일부 변하겠지만, 다루는 내용은
계속 제 작업의 중심을 이루게 될 거예요.



한 인터뷰에 따르면 ‘매 전시가 끝날 때마다 작업을 그만두고 글을 쓰거나 카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예술이 반드시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성껏 끓여낸 김치찌개 한 그릇도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저는 그저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을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그만두는 것이 예술을 그만둔다는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작가로서 저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예술을 선호합니다. 실재하는 재료로 만든 작품이 특정 공간을 점유하며 관객과 만나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조각이라는 장르의 특징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물리적 공간이 없다면 제 작업은 존재할 수 없고, 관람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조건은 창작 과정에서 제약으로 작용하고, 전시의 시작과 끝에서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정말로 카페를 열었다면 어떤 콘셉트였을까요? 바람을 현실화하려고 틈틈이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어요. 콘셉트는 전형적인 카페보다는 ‘개방된 수장고’에 가깝습니다. 안온하게 차를 마시며 작품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 관람객과 자주 만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품과 글로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풍경은 제가 작업을 통해 지향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작가라면 ‘올해의 작가상’ 수상으로 인해 작업이 나를 대변하고 있음을 체감할 것 같습니다. 작업은 저를 말하지 않아요. 되레 저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작업에 내세운 허구의 인물들은 실은 허구가 아닐지도 모르죠. 저는 차갑고 이성적인 편인데, 정작 저는 그런 성격이 만족스럽지 않아 반대의 모습을 동경해왔어요. 아내는 종종 “작업 속에서 사람 좋은 척한다”고 농담을 던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했지만 자신을 깨닫고 선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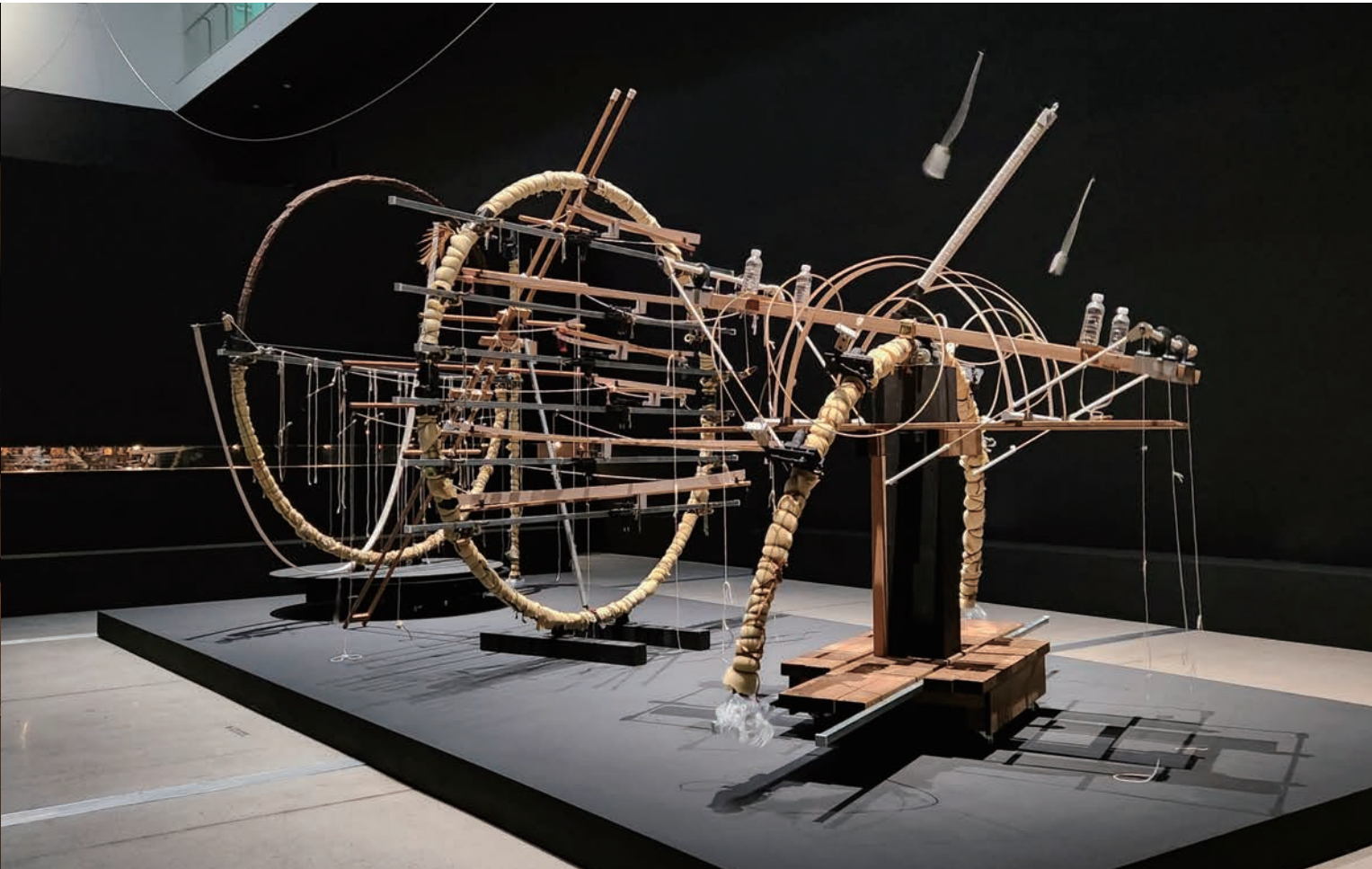


인터뷰를 위해 그동안의 작업을 재차 살펴보았는데, 긴 작품 제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가끔은 작품 내용과 단번에 연결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요. 처음 걷는 산길에서 단번에 길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몇 번쯤 지나야 어렵פות하게 길의 모양이 보이죠. 어쩌면 모든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목은 일종의 힌트일 뿐입니다. 무제나 숫자로 된 제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되도록 친절한 방향으로 제목을 짓고자 합니다. 긴 글이 짧은 글로, 짧은 글이 한 줄의 제목으로 남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 보는 이의 경험을 염두에 두지만, 소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작품은 어떤 이름으로든 불려야 하기에 힌트로 활용하려고 해요.

작품과 연관된 에세이가 곁에 있으면 빠르게 공감할 수 있지만, 없으면 간혹 미로에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땐 제목만 보고 ‘인간다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겠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웃이나 자동차를 고를 때

저마다의 기준과 취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배운 적은 없어도 꾸준히 보고 경험하는 동안 자기만의 미감과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멋지거나 촌스럽다고 인식하는 감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창작물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감각은 오랜 시간 흐름을 따라가며 형성되고, 또 어떤 감각은 찰나의 인상이나 생소한 조합 속에서 비롯합니다. 우리는 그런 묘한 뉘앙스들을 모아 자신만의 경험과 조합하고, 그로부터 또 다른 의미를 유추합니다. 전시실에 에세이를 놓은 건 이번 전시가 두 번째였어요. 기실 에세이를 전시실에 공개하는 건 꽤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친절한 해설서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해석을 제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올해의 작가상 2024》전시를 둘러싼 반응도 호불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속·나무·모터·실·철 등 재료를 다루는 방식에서 사람의 손때나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점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담아낸다고 할까요? 저는 소박한 대상에 끌려요. 꼭 저렴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 본질을 알고 익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로우테크low-tech 재료는 특별하진 않아도, 기억의 끝자락에 스며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도 해 볼 수 있겠다’, ‘충분히 따라 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처음 가는 소모임에서 늘어난 티셔츠나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잖아요. 반대로 정장을 입고 있으면, 괜히 긴장되고요. 제 작업도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으면 합니다. “저건 나무와 실이구나. 그런데 움직이네?” 하고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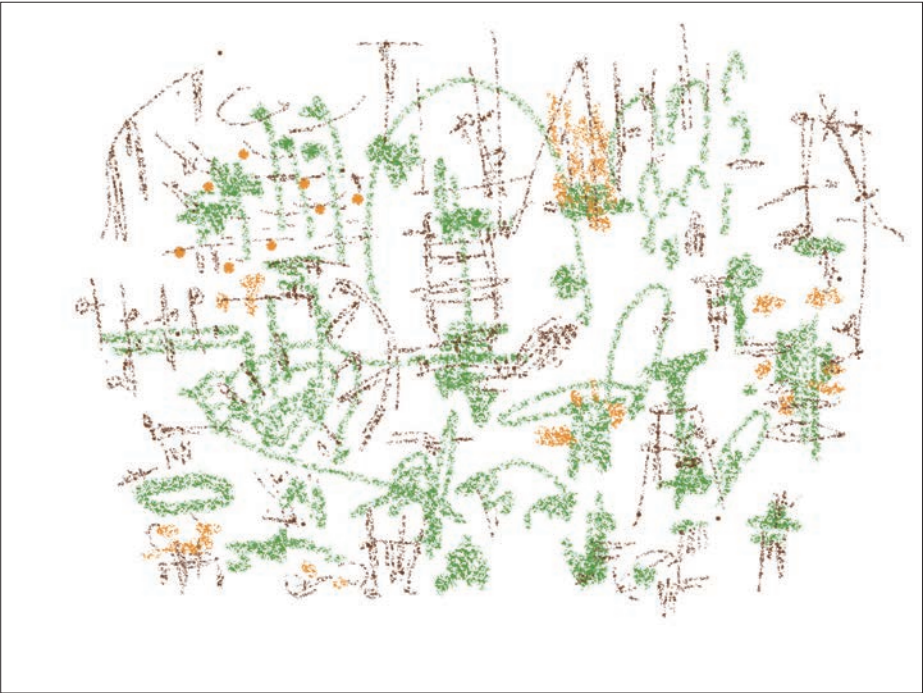
사용하는 기술도 소재 선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을 ‘사랑’에 비유하곤 해요. 연기에 빔타지면 화려한 연기는 쉬워 보여요. 하지만 어설픔고 바보 같은 연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미묘한 불완전함 속에 치밀한 계산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까닭이죠. 최신

장비와 기술을 몰라서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인터랙티브한 제어와 서보 모터의 섬세함도 구현할 수 있지만, 실험에 실험을 거쳐 제 작업에 어울리는 건 로우테크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때때로 능숙하지 못한 이에게 작업을 부탁하기도 해요. 삐뚤빼뚤 실을 감고, 투박한 방식으로 금속 구조물을 묶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정성과 단단함이 제가 건네고 싶은 조형의 감정이거든요. 제 작업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지?”보다, “여러 번 묶어 튼튼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합니다. 불완전하고 서툰 손길, 낮은 기술과 단순한 재료 안에 담긴 애تمام, 저는 그것을 ‘사랑의 기술’이라 부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발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아버지와와의 추억을 돌아보는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발에서>2024에서 드라마 <썩속 속았수다>의 시퀀스가 오버랩됐어요. 아직 그드라마를 보지 못해서...(웃음) 작업은 물·비람·태양이라는 필수 요소와 씨름하며 체념하고 또 성장해나가는

↑ 《올해의 작가상 2024》전시 전경,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아마추어 농사꾼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넘쳐도 부족해도 곤란한 것들이잖아요.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발에서>에는 행복과 긴장감, 배부름과 배고픔, 피곤함과 활기 같은 상반된 감정의 진폭이 반복되며 스며 있습니다. 2017년에 쓴 소설과 아내가 가꾸던 작은 텃밭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업은 ‘흔적’을 매개로 타인의 상태와 감정을 짐작하는 우리의 일상을 비춥니다. 출근길에 헝클어진 뒷머리 하나로 누군가의 아침을 그려보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아내가 개긴 빨래가 엉뚱한 곳에 놓인 걸 보며 그날의 고단함을 헤아리는 식의 짐작이요. 전시실에 작품을 설치할 때도 구체적 형상 없이 몇 개의 작대기만으로도 누군가의 감정과 상황을 짐작하며 곁에 있는 사람과 시선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작업을 수놓은 전구는 희망, 기다림 등 감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 빛은 곧 희망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듯, 전구의 따뜻한 빛은 사람 마음속의 작은 불빛과 닮았어요. 그것은 연민이나 호기심처럼 삶을 이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죠. 예전에 전구 회사 대표님께서 하신 말이 있는데, 여전히 긴 여운을 남깁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에는 아날로그 전구를 켜세요.” 이후 글을 쓰는 책상과 아이 방에 아날로그 전구를 켜두고 있는데요. 전구가 광원을 넘어, 마음의 파장을 다독이고 감정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를 감상하는 동안 작품과 작품이 벽면 위에 그려낸 가는 다란 선으로 연결된 점을 발견했어요. 개별 작품에선 각각의 요소가 실로 이어져 연장선처럼 보였죠. 저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연결은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과 역할에서 비롯됩니다. 가령 기자라는 직업은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도 공통의 문제의식, 즐거움, 은어 등을 공유하잖아요. 저 역시 아버지이자 선배 작가, 통신사의 고객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의 역할들은 끊임없이 겹치고 생겨나며,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같은 연결이 언제나 곧고 매끈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불구불한 분필 자국처럼 불완전한 형태일수록 인간다운 진정한 ‘달음’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마감을 목전에 두고 동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 때문에 늘 신작에 특별한 애착이 생깁니다. 특히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발에서〉와 〈서로 아껴주는 마음〉²⁰²⁴은 작업실 안에서 불과 1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동시에 작업한지라 감정과 기억이 진하게 남아 있어요. 무엇보다 두 작업 모두 ‘아버지’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어서 감정을마저 서로 닮았어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작업을 시작으로 작품 규모가 점점 커지고, 노동과 생계라는 소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더군요. 졸업하면서 넓은 공간을 지원받았고, 갤러리와의 연을 맺었으며, 레지던시에도 입주했습니다. 물리·경제적 환경이 안정되면서 작업의 외형과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를 담아내는 조형의 조건이 달라진 셈이죠. 초기 작업은 유난히 얇은 구조가 많았어요. 좁은 작업실 문과 가파른 계단을 지나야 했기에 겹겹이 얇은 레이어를 쌓아야 완성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습니다. 한편, 결혼과 육아는 작업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었어요. 최근 둘째 딸을 품에 안고 인터뷰 사진을 촬영하곤 하는데, “가정을 꾸려도 작가로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요즘 특강과 인터뷰에선 스스로 ‘미술 업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웃음) 개인사업자로서 수입, 세금, 계약 등을 책임져야 작가라는 직업이 잘 굴러간다는 것을 공유하는 데

← 양정욱,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발에서〉드로잉, 2024, 나무, 모터, 전구, 실, 철, 300×700×300cm

의의가 있어요. 실제 특강에서 제 작업 설명보다 작가로서 살아가는 법, 직업인으로서의 자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잦습니다.

작업과 삶 모두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되네요. 작업이든 삶이든 출발점은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엔 넓어 보이던 공간도 익숙해지면 좁아지듯,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한쪽으로 기울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구식 균형이 하루를 일정하게 나누는 직선형 구조라면, 제가 말하는 균형은 쓰러질 듯 돌아가는 원반을 손으로 끊임없이 조정하며 중심을 잡는 불안정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숫자처럼 정확히 맞추려 하기보다는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움직임 자체가 진짜 균형 아닐는지요. 비틀거리더라도 부단히 도전하려는 태도에서 저는 인간의 근본적인 품격을 발견합니다.

드로잉·조각·글쓰기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작업을 펼칠 계획인가요? 주제는 유지하되, 형식은 아직 몰음표입니다. 에세이를 배치한 〈올해의 작가상 2024〉전시 방식에 관해 관객은 “이해가 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술 관계자 사이에서는 해석이 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전시에서도 글을 돌지, 아니면 작품만으로 관객을 끌어당길지를 두고 고민 중입니다. 사실 저는 현대미술보다는 대중미술을 지향합니다. 영화를 본 뒤 “이번이 더 낫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같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요. 〈올해의 작가상 2024〉전시 개막 전 미술관을 경비하는 분께 제 작업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며칠 후 그분이 지인을 데려와 도슨트를 자청하시더군요. 제 작업이 누군가에게 쉽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는 아이를 키우면서 확고해졌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길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획 지나치는 어른을 보며 ‘이게 맞는 세상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정한 세계를 선물하고 싶다’는 다짐이 생겼죠. 앞으로 제 작업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는 자리가 됐으면 해요. 나아가 선배·동료·교사와 같은 어른들이 보고, 다정한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윤이

문학/소설
b.1992
@haamyuni
2021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다원예술) 선정
『서울집』 전시 및 출간
2022·2025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소설을 쓰고 책을 편집하는 함윤이입니다. 최근 몇 달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레지던시 연희문학창작촌에 머물며 첫 단편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자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중학생 시절 대안학교를 다녔고, 이때 졸업 작품으로 소설을 집필하면서 좀 더 본격적인 창작을 이어갔습니다. 소설을 쓴 계기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 집에 있던 컴퓨터가 인터넷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겠네요. 텍스트 파일 정도만 돌릴 수 있는 컴퓨터로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책에 파묻혀 지내는 어린이였으므로, 직접 비슷한

형체의 텍스트를 만든다는 일 자체가 무척 재밌었습니다.”

“앞선 대답처럼 꽤 이른 시기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창작’을 한다는 모종의 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관련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기도 했고요. 다만 스스로 직업이 ‘예술가’라고 느끼게 된 것은 글쓰기로 얼마 안 되는—정말로 얼마 되지 않던—수익을 얻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등단하기 전에도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과 협업하고 돈을 벌면서 직업으로서의 예술가와 노동으로서의 창작에 대한 감각을 이어나가게 됐고요. 돌이켜보면 예술가라는 직업을 인지하게 된 명확한 계기가 ‘경제 활동’이었다는 점이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표작보다는 가장 최근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래 출판사 북다의 로맨스 시리즈 ‘달달북다’에서 ‘하이틴’을 주제로 쓴 단편 소설 『위도와 경도』를 출간했습니다. 우주에 고립돼 열흘을 보내며 사랑에 빠진 소녀 ‘위도’와 소년 ‘경도’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자신들이 우주에 머문 10일 동안 10년이 흘렀다고 확신하며, 지구에 돌아와서도 ‘성인으로서’ 사랑을 이어가려 하지만 여러 방해를 받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그 난항을 통과하는지, 또 10대와 성인의 사랑에 어떤 차이점과 교차점이 있는지 등은 소설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해 중 첫 단편 소설집이 나오는데, 약 7편 정도가 실려요. 조만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영감’의 정체나 정의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진 못했지만,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나 이를 추진시키는 착상은 정말이지 다양한 경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책과 영화·만화 등 제가 읽고 보는 이야기에서도 영향을 받고, 친구들과의 자잘한 대화나 대중교통에서 본 사람들 등 일상의 경험에서 느낀 여러 감정 역시 자극점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은 제가 읽고 싶은, 또 파고들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 같아요. 가령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은 무슨 행동을 할까?’, ‘이런 관계는 어떻게 끝날까?’ 같은 질문 또는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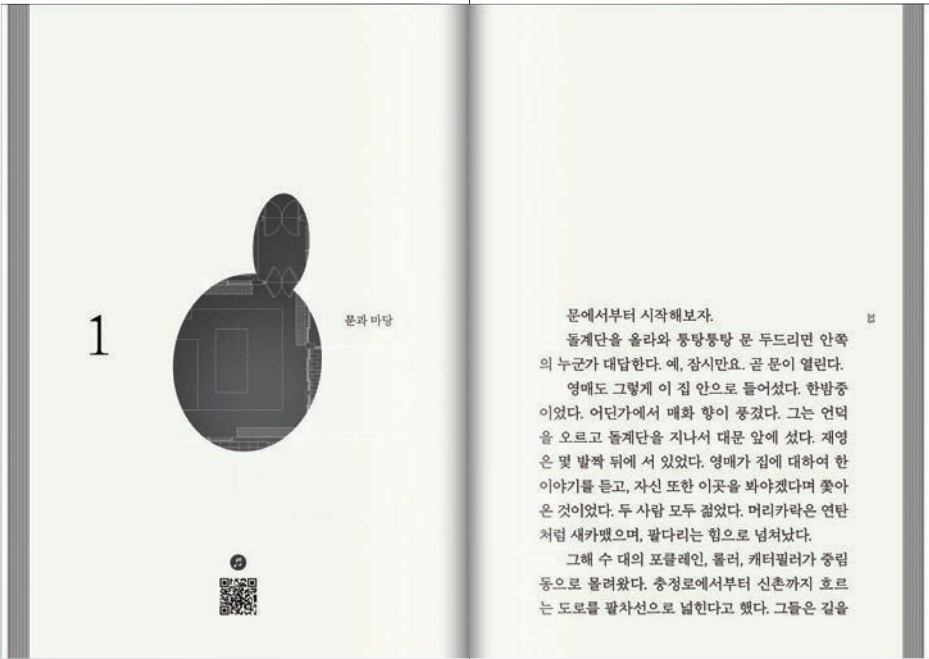


↑ 단편 소설 『위도와 경도』 표지
↳ 소설 프로젝트 『서울집』 내지

이야기도 나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읽고/보고 싶은 것을 만들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물론 이 가능성을 영원히 실현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요) 창작은 정말 근사한 일 같습니다.”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몇 달 전 극장에서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쇼잉업>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각자 작업을 하는 미술 작가들의 이야기인데, 저나 제 친구들의 삶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보다 훨씬 풍광이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요) 그 안에서 오고가는 질투와 동경, 설움, 순수한 기쁨 같은 것이 차곡차곡 쌓여 막판에는 조금 울었어요. 예전에는 환상적이고 장르적인 서사에 훨씬 큰 관심을 가졌는데, 요새는 이렇게 현실에서 아주 빠르게 휘발되는 순간을 제대로 붙잡는 이야기들에도 큰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첫 책을 잘 마무리해 내 보이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첫 장편과 경장편 등에도 골몰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다른 창작자들과의 협업 역시 꾸준히 하며 서로 다른 매체가 만날 때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욕심 많은 계획이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도현

클래식 음악/피아노
b.1994
@nickkim1003
2024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김도현 피아노 리사이틀 슈만Schumann
1810-1856〉
2025 제3회 서울예술상 음악 부문
최우수상

“음악의 아름다움과 치유의 힘에 감동받아 피아니스트의 길을 택했고, 재능을 바탕으로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음악가 김도현입니다.”

“유치원에 다닐 당시 배운 동요를 집에 있는 피아노로 더듬더듬 뚝뚝거리며 처음 음악을 접했고,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니다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많은 음악을 들으며 피아노를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017년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학사를 졸업한 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Verbier Festival에서 열린 방돔 프라이즈 콩쿠르The Vendome Prize for Piano에서 수상하고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Young Concert Artist 국제 오디션에서 우승하며 연주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연주를 이어가다가, 2021년 부소니 피아노 콩쿠르Ferruccio Busoni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2위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연주 기회를 자주 얻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마다 더 좋은 음악가가 돼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공연이 펼쳐지고 사라지는 순간들이 저와 제 공연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기록은 곧 마음속 작품이 됩니다.

『Poème』2024은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함께 작업한 앨범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남는 기록이겠네요. 제 솔로 앨범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비롯해 예정된 여러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소개하자면, 가장 먼저 7월 10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목요일 스페이스'와 9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채버홀에서의 독주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 음악은 저만의 색이 짙게 묻어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직간접적인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사람의 목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묘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경험하며 느끼는 생각, 감각, 감정과 지식이 예술 활동에 많은 영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와 음악을 만든 존재로부터도 영감을 받고요. 정규 학업을 모두 마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다고 느낍니다. 마음껏 연습하고 책을 읽으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음악을 들을 때 그것이 모두 다

제 음악에 녹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수 김진호의 『사람들』2014이라는 앨범을 자주 들으며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음악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일깨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김주환 교수의 『내면소통 명상수업』2025이라는 책을 읽으며 더 좋은 사람으로서, 예술가로서 꼭 탐재해야 할 기술과 지식을 배웠고, 제게 아주 큰 영감이 됐습니다.”

“최근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이하느리의 작품과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회를 봤습니다. 위우기도 어려운 곡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첼리스트 한재민이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연주한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에서 펼쳐낸 그의 강렬한 감정 표현과 첼로의 울림은 아직도 제 심장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음악가로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의 연주를 보며 교류할 때,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을 접했는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음악 장르를 외면하고 생소하게 느낀 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 마음을 열어 다양한 음악을 접했고, 1900년대 후반을 장악한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역시 인상 깊게 감상했습니다. 록이라고 하면 보통 과격하게 머리를 흔들며 스트레스를 푸는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멤버 한 명 한 명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앨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도록 완성성도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은 공감의 예술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도 생소하게 느끼지 않고 그것에 공감하게 하며,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음악을 찾아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서야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연주 활동을 늦게 시작한 만큼 배워야 할 기술과 지식, 경험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연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길을 꾸준히 걸어나가겠습니다.”

무대기술팀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



두 번이나 떠났지만 다시 극장으로 돌아온 이종훈 무대감독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공연계에는 조금 늦게 입문한 편입니다. 그나마 이바닥 뜨겠다고 두 번이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이고요.(웃음) 그간 가구 목수로, 또 목조주택 빌더로, 카페 바리스타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다양한 일을 잠깐씩 했습니다. 전기 공사나 인테리어도 했지요. 생활비가 부족할 땐 공사판에도 간간히 나갔습니다. 그 끝에 ‘내가 하던 일 만한 게 없구나’ 싶어 극장 무대감독 직에 다시 지원했고, 운 좋게도 2022년 7월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에 맞춰 서울문화재단 무대기술팀에서 다시 무대감독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공연 판에 뛰어든 청년기 저는 ‘노는 대학생’이었어요. 이른바 ‘관중’(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고요. 엠티와 체육대회를 쫓아다니고, 학예회 수준의 콘서트 공연을 기획하는 게 즐거움이었지요. 공부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아서,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누렸달까요. 친구와 둘이서 국토대장정을 떠나겠다고 돌아다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잡힌 적도 있고, 교내 숲에 톨 소여의 나무집을 짓겠다고 덤비기도 했고요. 이제 와 생각해보니 저는 유튜브를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웃음) 그러다 한 야외 축제에서 연계해 개최한 무대기술 워크숍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유관 회사에 눌러앉았습니다. 인턴에서 직원이 됐고, 무대 조감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무대 크루로 일했습니다. 손재주 좋고 빠릿빠릿한 젊은 일꾼이었죠.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서울아트마켓PAMS)에서 공연 스태프 일을 하며 무대감독 업무를 배웠습니다. 캐드를 배워서 극장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고요. 이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극장기술정보 DB 구축 사업에 실무자로 참여한 것이 극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줬습니다.

20대 후반, 퇴사하다 학생 때부터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하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조금만 안 맞아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에 기웃거리게 된 거죠. 퇴사하고 여러 바닥을 전전하면서 세상에 좋기만 한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가진



재주로 조금씩만 벌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러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라바이트 정도만 해서 소소하게 사는 게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극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예술에 필생의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오기로 마음먹고 반년간 열두 곳 넘게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싶던 서울문화재단에 기회가 닿았고,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을 앞둔 시점에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대감독의 역할은 업무의 제 목표는 관객에게 약속된 시간에 공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같은 목표를 가진 공연단체가 극장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극장은 공간이면서,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대감독이 하는 일이지요. 극장의 기술 스펙을 관리하고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이들과 실무를 진행하는 일부터, 실제 공연을 위해 셋업을 진행하고 공연 기간 참여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일련의 모든 일정을 관리 감독하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공연이 이뤄지도록 극장 컨디션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모두 무대감독의 역할이 됩니다.

극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공연의 매력이란 관객이

바라보는 무대는 보여주기 위해 열어놓은 작은 화면입니다. 실제 극장은 매우 크지요. 당신에게 보이는 무대를 위해 그 뒤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수많은 장비와 기술자들, 그리고 세련된 출연진들이 숨어서 ‘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짜잔~’ 하고 내보이는 순간이 좋아요. 어쩌면 제가 학생 시절 벌이던 일들도 공연의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수많은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그럴듯하게 그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가슴이 뭉칩니다.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이 좀 더 풍성해지려면 기금 저는 우리 삶에서 문화예술이 단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상관없이, 현대 사회에서 문화예술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단가 싸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미 예술계의 참여자들은 극단적으로 적은 돈을 받으며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술에 따르는 비용을 더 줄이는 건 불가하다는 뜻이죠. 소비자들은 지난 수십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예술이 우리 삶에 더 많이 확산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상업광고·간접광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렇다면 예술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생기겠지만, 저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무대감독의 하루
평일 오후 7시 30분, 첫 공연이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하루를 생각해봅시다!
13:00 출근합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한 무대감독으로부터 오전 중 극장에서 발생한 특이 사항과 오후 일정에 관한 부분을 인계받습니다.
14:30 오후 3시에 예정된 드레스 리허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리허설을 하면서 공연의 최종 러닝타임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6:40 극장의 무대감독과 공연의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가 모여 공연의 시작과 종료에 관한 사항, 관객 입·퇴장에 관한 부분을 확정합니다.
17:00 한 시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엔 누구도 극장과 무대에 출입할 수 없지요. 감독과 스태프들은 이때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18:00 공연팀이 복귀하고, 막이 오르기 전 필요한 장면 연습과 최종 점검을 진행합니다.
19:00 공연 무대감독에게 공연에 관한 모든 부분이 준비됐는지 확인합니다.
19:10 하우스오픈을 선언하고, 이를 모든 스태프에게 전달합니다. 이때부터는 관객이 무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추가 작업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관객이 입장하고, SM 데스크(공연 중 무대감독이 자리하며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에서 무대와 객석 여러 곳을 비추는 모니터를 보며 이상 상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9:29 하우스매니저가 관객 입장을 마감합니다.
19:30 안내 멘트를 풀고, 공연 무대감독에게 SM 데스크를 넘깁니다. 이후 극장 무대감독은 SM 데스크 가까이에서 대기하면서 공연 중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합니다. 몇몇의 경우, 공연 무대감독의 큐를 받아 무대기계를 전환하게 됩니다.
21:10 커튼콜이 끝나면 관객이 충분히 공연의 여운을 만끽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무대 위 모든 요소를 유지합니다. 마지막 관객이 떠나고, 하우스매니저가 극장 문을 닫으면, 극장 무대감독은 공연 종료를 선언합니다. 극장 내부에 작업등이 켜지고,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무대로 올라와 뒷정리를 시작하지요. 오후 10시 무렵까지 공연팀이 작업을 마치고 퇴장하면, 극장 무대감독은 무대와 분장실의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소등한 뒤 빠져나갑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드디어 저도 퇴근이네요.

다정한 안부를 물으며 예술을 선물합니다

다정한 아트라운지

지난해 3만 명의 시민이 다녀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1층 아트라운지. 성황리에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해온 센터가 올해는 ‘다정한 아트라운지’라는 이름으로 사계절 내내 예술과 함께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난 4월 9일부터 나흘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봄 시즌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모집과 동시에 마감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 600여 명이 함께하며 어느새 만개한 벚꽃과 함께 봄 시즌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계속됐다. 첫날에는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둘째 날에는 강아슬 싱어송라이터와 김현 시인이 함께하는 문학 낭독과 포크송이 있는 북 콘서트, 그리고 셋째 날에는 김연수 소설가와 최희승 큐레이터가 미술 감상과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토요일 오후에는 봄에 어울리는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연주자가 직접 낭송해주는 시가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공연 <음악의 첫 페이지, 프롤로그(Prologue)>를 진행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소품곡부터 차이콥스키의 현악기를 위한 세레나데까지, 완전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연주가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악 연주자 6명으로 특별 편성된 ‘프로젝트 S팀’(바이올린 김기환·송태진, 비올라이건희·윤지현, 첼로 이호찬·이길재)이 함께했다.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벚꽃이 만개한 주간에 선물 같은 시간을 즐기고 돌아갔다.

개막 주간을 시작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본격적으로 봄 시즌을 맞이한다. 서울문화재단 대표 브랜드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의 봄 시즌은 4월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말까지 문학·음악·시각예술 장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예술교양’, ‘예술체험’ 과정의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 아트라운지에서는 4월의 작가인 일러스트레이터 요리와 함께한 창작 워크숍 ‘봄맞이 드로잉: 제철꽃편·제철나물편’의 호응이 뜨거웠다. 두 회차에 나눠 진행된 워크숍은 각각 평소 산책길에 많이 보았던 제철 꽃이나 봄에 가장 좋아하는 제철 나물의 이름을 익혀보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손 그림을 엽서에 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봄 내용과 영양 가득한 봄의 계절감을 물씬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봄 시즌을 맞아 ‘봄이 흐르는 음악’과 ‘봄이 전하는 문장’ 등으로 새롭게 단장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모습





↑ 소설가김연수와 큐레이터 최희승이 미술 감상과 소설에
관해 대화를 이어나간 <소설가가 미술 작품을 만났을 때>
← 트럼펫 연주자 성재창과 함께한 <울 어바웃 트럼펫>

5월에는 더욱 풍성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5월의 작가인 시각예술가 김건주와
함께하는 블라인드드로잉과 실크스크린 ‘계절
기록’, ‘계절 나기’ 창작 워크숍에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그려보는 블라인드드로잉,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실크스크린 기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문학
토크콘서트 ‘안녕을 나누는 사이, 봄나들이’가
열린다. 다정하고 유쾌한 언변과 시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시인 오은이 진행하고,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작품을 통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부부 시인 장석주·박준연이 게스트로 함께한다.
세 명의 시인과 함께 우리에게 ‘읽기’가



← 일러스트레이터 요리와 함께한 ‘다정한 아트라온지’ 4월
프로그램 ‘봄맞이 드로잉: 제철꽃편’

왜 필요한지, ‘쓰는 일’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누는 자리다. ‘안녕을 나누는
사이, 봄나들이’는 매 계절의 마지막에 찾아오며,
지난 계절을 안녕으로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안녕하며 맞이하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게다가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겨울
큰 사랑을 받은 아트라온지 팝업 행사가 봄을 맞아
다시 찾아온다. 혹여 봄 시즌 프로그램 신청을
모두 놓쳐서 아쉬웠다면, 5월 중순에 반짝 찾아올
절기 팝업을 기대해도 좋다. 올해는 계절 감각을
깨워주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팝업
행사가 깜짝선물처럼 찾아올 예정이다.
첫 절기 팝업은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와 ‘햇별이
풍부하고 만물이 자라나는 소만’ 사이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찾아온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에, 예술을 담아갈 소창

차주머니를 함께 만들며 선선함을 나누는 시간이
준비된다. 절기 팝업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도
누구나 방문하면 참여가 가능하니, 더위를 함께
보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동료와 함께 공간을
찾아보면 어떨까. 물론 혼자 와도 제철 예술을
즐거기에 충분하니 안심해도 좋다. 혼자도 좋고,
같이 와도 좋은 절기 팝업은 행사 2주 전에 반짝
사전 공지되니, 꼭 달력에 표시해두었다가 공간에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간에는 계절이
전하는 예술이 항상 채워져 있으니, 이번 봄에는
센터를 꼭 방문해 충분히 즐겨보기를 권한다.
‘봄이 전하는 문장’ 코너에는 시작의 계절인 봄을
맞이해 변화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 24권이
준비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을 때, 익숙한
일상에 환기가 필요할 때, 사랑에 다시 설레고 싶을
때, 이 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에게 용기를 건네줄 것이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사적인서점 대표인
정지혜 책 처방사가 보낸 편지를 먼저 읽어봐도
좋겠다. 마음에 닿은 책을 골라 ‘봄이 흐르는 음악’
코너에 앉아서 음악과 함께 책을 읽어보자. ‘봄이
흐르는 음악’에서는 봄에 듣기 좋은 클래식·재즈
음악 8곡을 큐레이션했다. LP 플레이어로 음악을
접하는 동시에 음반과 관련 있는 도서들을 함께
큐레이션해 어렵지 않게 음악과 책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음악과 문학·미술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듣기, 읽기, 보기’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안하며, 훗날 이 계절을 떠올릴 때 당신의 마음속
더욱 깊이 공간의 추억이 남기를 바란다.

다정한아트라온지는 올해 ‘사계절 언제 와도
예술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활짝 열려 있다. 봄비에
만물이 깨어나는 봄에는 모두가 영양 가득한
기운을, 햇별이 타오르는 뜨거운 여름에는 모두가
선선한 쉼을 나누며, 곡식이 여물어가는 가을에는
다 함께 수고한 보람을 같이하고, 아직은 멀게
느껴지지만 눈이 포근하게 내리는 겨울에는
이 공간에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다정한 안부를
건네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의 ‘다정한
아트라온지’에서 사계절을 함께해보자.



종이책의 귀환, 텍스트 세계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찾아서

“년 최고였지 / 이제 년 한물갔어 / 비디오는 라디오 스타를 죽였어”(버글스The Buggles, ‘Video Killed the Radio Star’, 1979) 1981년 미국 MTV는 개국 방송에서 첫 곡으로 이 노래를 틀었다. 이제 귀로 듣는 음악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바야흐로 눈으로 보는 음악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다. 과연 세상은 비디오 시대의 음악에 열광했으며, 그로 인해 대중문화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듣는 음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음악산업의 주요 전파자였던 라디오는 끝이 났는가. 귀의 시대는 오히려 취향과 다양성, 전문성과 독자성으로 심화하고 변주되며 또 다른 시대로 진화해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디오 시대에서 비디오 시대로의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천지개벽한 문자 미디어, 출판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극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고속 인터넷의 상용화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2000년대 얼마간 붓물을 이룬 것이 웹진이었다. 불과 20여 년 전부터 10여 년 전의 상황이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마치 모든 잡지가 웹진 형태로 전환될 것 같은, 나아가 종이책의 미래 역시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압도됐던 듯하다.

필자 역시 당시 문학잡지의 편집위원이었고, 한편으로는 소속 대학 연구소에서 웹진 창간을 주도하고 편집장을 맡은 상황이었다. 그러니 전통 매체와 디지털 매체 사이에서 운영자로서의 갈등이 존재했다. 더욱이 글을 쓰는 콘텐츠 생산자와 늘 상당한 글을 읽는 전문 독자로서의 입장까지 존재했기에, 상황에 대한 판단은 보다 복잡하고 미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보자시피, 이러한 미디어적 진화는 전통적 상황을 해체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변형태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듯하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부터 짚고 얘기하자면 2025년 한국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등록된 잡지의 숫자는 5,913개에 달한다. 잡지의 대부분이 여전히 인쇄된 형태의 종이책으로 배포되며, 일부는 웹진을 병행하기도 한다. 양자를 동시에 배포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미디어적 차이에 따른 효과 계산은 더 분명해진다. 디지털 매체를 사용할 경우 운영자는 확장성·접근성·정보성, 브랜딩을 중심으로 기대 효과를 생각한다. 그래서 종이책보다도 내용을 요약해 간명하게 전달하려는 경우가 많다.

반면 종이책의 접근성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는 일에 익숙해진 독자층에게 종이책이 번거로운 짐으로 감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감각’은 ‘문자-읽기’에 관해 더 섬세한 분화를 촉진하는 경향과 함께 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매체 읽기와 종이책을 통한 읽기는 전혀 다른 경험-감각이라는 걸 알게 된다. 문자를 통한 지적 정보는 문자에 담긴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어 나르는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수용 양상을 띠는 사실을 실감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자 해독에 있어 종이책에 비해 디지털 매체가 현저하게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관찰 보고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특히 IT 도구는 멀티 태스킹, 다양한 정보 경로를 지시하고 아카이빙하는 앱의 플랫폼이기도 하므로, 디지털 읽기는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고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여지를 환경적 상수로 지니고 있다. 둘째, 디지털 매체는 종이책에 비해 문해 피상성이 매우 높다. 종이책의 행간을 뚫고 들어가며 사색하던 인간의 시선은 웹 또는 디지털 표면에서 튕겨나가거나 미끄러진다. 정보 중심 텍스트를 읽는 일은 별문제가 없지만, 깊은 사색과 정치한 독해를 요하는 글을 해석해나가는 힘들다. 게다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특성상 스크롤바를

내리며 텍스트를 ‘훑는’ 읽기 방식은 더더욱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잡지의 경우도 시각적 특성이 강한 그래픽 중심 잡지나 1차 정보 위주로 쓴 기사가 많이 실리는 잡지, 심도 있는 사색을 요하는 인문학적 텍스트가 분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전히 종이책으로 창간되고 있는 잡지나 재창간되는 잡지 중 상당수가 문예지 또는 인문학 텍스트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잡지를 선호하는 독자들을 ‘올드보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정보가 지닌 성격에 따라 읽기의 집중도와 난이도가 달라지므로, 독자들은 그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4월, 전설의 종합 문예지였던 『사상계』가 폐간된 지 55년 만에 종이책으로 복간되는 출판사적 사건이 있었다. 열흘도 되지 않아 초판을 매진시키고, 많은 수의 정기 구독자를 확보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디지털 매체가 지닌 피상적 독서 환경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밀성과 읽기의 즐거움, 지적 심도야말로 종이책의 효과이자 고유 영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종이책 독자간의 정서적 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매체·플랫폼을 활용한 책 읽기에서 독서 주체간의 대화는 기능적이며 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종이책, 특히 종이잡지는 해석의 행간을 열어놓는 인문학 텍스트의 경향이 독자 간 상호 대화를 촉진하며, 아날로그적 물성이 지닌 취향, 정서적 경향과 맞물려 ‘읽기의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다. 종이책 독자는 텍스트를 검색하거나 1차 정보로 소비하는 소비자리기보다는 텍스트에 함의된 세계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취향 공동체, 의미 여행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이책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양적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는 졸렬한 산업주의자의 관점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다. 삶은 1차 정보의 전달만도, 검색만도, 데이터의 소비만도 아니다. 인간에게 내면이 있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텍스트에도 행간이 있고 여백이 있으며, 해석의 세계가 있고 정서가 있다. 이것이 종이책의 세계다. 그 세계의 향유자와 공유자는 디지털 매체의 소비자와는 다른 공동체 속에 산다.

대만의 문화 정책, 더 많은 이들이 공정하게 누리도록

대만은 지금, 누구나 문화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넓혀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암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문화적 공정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혁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문화 포인트, 더 많은 청소년을 향하다

2025년부터 대만의 청소년은 좀 더 이른 나이에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대만 문화부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 포인트Culture Points’ 제도를 13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포인트는 서울시의 청년문화패스와 닮아 있는 정책으로, 대만 청소년의 삶에 문화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조치로 인한 문화 포인트 제도의 수혜 대상은 13~21세 청소년으로, 그 수가 확대된다. 이는 2023년 제도 도입 당시 18~21세였던 대상 나이가 폭넓게 확대된 것으로, 대만 청소년의 문화 향유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 16~21세는 1,200신대만달러(한화 약 5만 2천 원), 13~15세는 600신대만달러(한화 약 2만 6천 원)에 해당하는 문화 포인트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바우처는 지정된 독립서점·음반 가게·라이브 음악 공연장·박물관·영화관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리위안李進 대만 문화부 장관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노출되기에, 더 일찍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며 이번 정책의 변화 계기에 관해 설명했다. 대만 문화부는 문화 접근권의 보편성을 정책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문화 포인트 제도는 대만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증ARC을 가지고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청소년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문화 포인트 바우처는 모바일을 통해 발급되는 QR코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지류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 또한 놓치지 않았다.

다만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와 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참여율이 아직 낮다는 점은 해당 정책의 과제로 남아 있다. 더불어서 2024년에는 문화 포인트 바우처 수령 대상자 가운데 약 16.4%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부는 향후 정책 접근성과 홍보 방식 개선을 통해 참여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표 뿌리뽑기에 나선 정부

대만의 공연 현장에서 암표는 오랜 시간 골칫거리였다. 암표를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의의 시작에는 흥미롭게도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영향이 있었다.

2023년 3월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를 앞두고 가오슝에서 티켓을 정가의 4배로 되팔던 남성이 체포되며 대만 사회는 암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타이완 뉴스Taiwan News’를 비롯한 여러 대만 언론이 일제히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암표 판매에 대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대만 정치권에서도 암표 처벌 관련 법률의 개정과 단속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후 문화부는 문화창의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문화 공연의 입장권을 액면가 또는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판매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매크로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300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대만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암표와의 전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2023년 말 검찰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선점하고 고가에 되파는 조직을 기소했다. 이 조직은 티켓 예매 플랫폼의 인증 절차를 자동화되도록 우회해 접속한 것으로



↑ 2023년 3월 18일과 19일 대만 가오슝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는 10만 명 넘는 관객이 몰렸으며, 티켓 판매액은 1,400만 달러(한화 약 200억 원)로 집계됐다
©YG Entertainment
← 아이유는 2019년 이후 5년 만인 2024년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어 2만 4천여 대만 관객과 만났다
©EDAM

알려졌다. 해당 조직이 판매한 공연 티켓에는 (여자)아이들·블랙핑크 리사·투애니원 등 한국 아티스트의 공연이 여럿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화부는 이후 2,105건의 암표 판매 사례 중 609건을 조사에 회부했고, 이 중 300건을 조사 완료해 총 208만 신대만달러(한화 약 9,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지방정부 실무자 교육도 병행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표를 막기 위한 실명 예매제도 시작했다. 대만에서 암표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이유 중에는 한국과는 다른, 대만 공연문화의 영향도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는 티켓에 구매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신분증의 실명을 대조하고 사진을 확인한 후에 발권 및 입장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콘서트의 경우 가족 및 지인 간 대리 예매 및 티켓 양도 또한 금지하고 있기에 암표의 구매와 판매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그간 예매가 치열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도 불구하고 신분 확인 없이 티켓만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도 암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명 거래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타이베이시 문화국은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명제 예매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연 주최 측에 타이페이 아레나Taipei Arena 대관료를 15퍼센트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을 활용할 경우 콘서트 주최 측은 하루 최대 283,500신대만달러(한화 약 1,250만 원)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 사례로는 일본 가수 요아소비와 한국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가 있다. 아직 실명 예매제는 일부 콘서트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이베이시 문화국을 비롯한 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향후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아티스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만은 암표 거래에 대해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제도와 기술 기반의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연문화를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대만 정부는 정책 개선을 통해 문화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지속 가능한 대만의 문화산업계의 변화가 기대된다.



SINDANG PROJECT EXHIBITION

공예 연결

2025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젝트 전시

2025. 5. 21. 수 - 2025. 12. 10. 수

신당창작아케이드 SASS 갤러리

강고운
안은경

윤지훈
이시평

임재현
탁하린

송인욱
한우현

박정언
김도영

김동욱
신제영

이명희
채민정

김정현
김도윤

서울공예박물관
윈도우 갤러리

리 호
신예원

강인규
채범석

신우철
이소명

신당창작아케이드

CONNECTION

낮말은 새가 듣고
날말은 시가 좁는다
움직이는 말들—어칠비칠과 물뎀봉술뎀봉
명곡의 뒤편길
자유롭게 환상을 누비는 프랑크 소나타를 들으며
국악 칼럼이라기엔 속스럽지만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을 높이는, 판소리
멈추면 보이는 것들
꽃피는 봄날이여, 영원하라

오만
시단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

움직이는 말들 —어칠비칠과 물덤병술덤병

오은 시인

어떤 날에는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듯 절로 눈이 떠진다. 아침 일찍 소화해야 할 일정도 없는데 괜히 조바심이 난다. 머릿속으로 시시각각 펼쳐지는 동선에 얼른 벽을 세워야 한다. 5분만 더 자고 싶다고 깨쓰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부지런함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몸속 어딘가에 아직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시작한다. 몸을 일으키고 침대에 걸터앉아 기지개를 켜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신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안과 양치질을 하고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연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봄바람이 두 뺨을 적시듯 파고드는 아침이다. 아침은 마침 움직일 시간이라는 듯이.

내가 움썽달싹하지 않고 있어도 사방에 움직임이 있다. 자세나 자리가 바뀌지 않아도 생각과 느낌은 분초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빛 속에서 활짝, 때때로 어둠을 헤치고 가까스로 피어나는 희망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 근사한 움직임이다. 움직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또 저기로 이동하는 일이다. 다시 여기로 돌아올 적에도 움직임이 필요하다. 가만있어도 생각이 땅속 깊이, 바다 끝까지, 우주 한복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의 속성 덕분이다. 움직임에는 관성이 있다. 멈추고 나서야 쉬지 않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도 한다. 흔히 우리는 시간을 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에 장악당하기 일쑤다.

움직임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속도와 기세, 리듬이 다 다르다. 전속력의 빠름이 있고 쫓기듯 죽자사자 쉴 때의 빠름이 있다. 등 떠밀려 억지로 만들어진 기운이 있고, 신난 나머지 콧노래까지 동반하는 기운이 있다. 리듬은 또 어떤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움직임은 안정적이되 어딘가 단조롭다. 새로운 상황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움이 깨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두렵지만, 이 안온함이 언제까지고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하품이 날 것만 같다. 졸졸 흐르는 시내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다. 일정한 리듬에 또다시 변화가 깃들기를 바라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조금 다르게 해 본다. 이렇게 걷다가 저렇게 걸어 보고, 한결같이 이 모양으로 묶던 것을 저 모양으로 비틀어 매어 본다.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들은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동하게 만든다. ‘동動하다’라는 단어에 이미 움직임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기운이, 병이 동하는 일은

삶을 다른 국면으로 이끈다. 마음이 동하면 원하는 대상을 얻기까지 시종 안절부절못하게 된다. 그(것)가 없으면 삶이 뭉개지거나 급기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때때로 장난기가 동해서 서슴없이 짓궂은 일을 벌이기도 한다. 동하는 것은 선한 마음뿐만이 아니다. 심술도 동하고 욕심도 동한다. 호기심이 동해서 낯선 곳에 발 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욕으로 부풀면 삶의 바탕을 뒤흔들기도 한다. 한편, 평소보다 무리하면 나왔던 지병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한번 동한 병은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다. 동하는 사람에게 바람 잘 날은 없다.

‘걷다’는 언뜻 천천히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앞을 향하여 힘차게 걷다”를 뜻하는 ‘내걷다’는 절로 ‘성큼성큼’이라는 부사를 떠올리게 한다. 내걸는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걷다’ 대신 종종 쓰이는 ‘거닐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움을 담고 있는 단어다. “가까운 거리를 이리저리 한가로이 걷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이 단어는 산책자에 맞춤형 단어처럼 느껴진다. ‘달리다’와 ‘달음박질하다’, ‘뛰다’와 ‘뒹박질하다’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속력이 붙는다. 달음박질과 뒹박질에 다급함이 달라붙는 것은 물론이다. 옷소매를 부르건고 돌진하는 세찬 기세는 덤이다. 다급함이 지나치면 달음박질과 뒹박질이 곧두박질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어떤 날에는 들뜸에서 출발한다. 어디 갈 데가 있거나 기분 좋은 만남이 예정되어 있을 때 그렇다. ‘어디 갈 데’가 마치 ‘운명적인 그곳’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심신이 같이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가만가만’ 걸어 나와도 ‘살금살금’ 다가가도 표정에서부터 움직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꼬리 흔들듯 ‘살랑살랑’ 가볍게 걸다가 자세를 바꾸어 ‘팔랑팔랑’ 재바르게 이동하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길 위를 ‘절벽절벽’ 물소리를 내며 걸어야 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눈길 위를 ‘뽕득뽕득’ 야무지게 걸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움직이는 이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은 이미 기쁜 날이자 끝내 기쁠 날이기 때문이다.

상념에 깊게 잠겨 ‘어기적어기적’ 걸다가는 애먼 곳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키가 큰 사람의 걸음은 ‘어치렁어치렁’처럼 보일 것이다. 기분 좋게 취한 사람은 ‘어칠비칠’ 걷기도 할 텐데,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위태위태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걸 보면 신통할 정도다. 어칠비칠은 “쓰러질 듯이 자꾸 비틀거리는 모양”을 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틀거리다’가 아니라 ‘자꾸’다.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끊임없이 나아가는 의지다. 그러다가 늦었다 싶으면 ‘허둥지둥’과 ‘허겁지겁’과 ‘헐레벌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달음박질과 뒹박질이 요긴할 것이다. 도착하기 전까지 움직임은 끝나지 않는다.



걷다, 달리다, 뛰다로도 부족할 때는 ‘날뛰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날뛰다는 “날 듯이 꺾충꺾충 뛰다”,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 “어떤 일에 골몰하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다” 등의 뜻을 갖는데, 개중 어떤 뜻으로 쓰여도 긴박한 상황임이 잘 드러난다. 흔히 날뛰다와 함께 쓰이는 ‘길길이’ 또한 펄펄 뛴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뛰고 또

뛰면 흡사 나는 듯 보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덤병술덤병’ 나서서는 안 된다. 물덤병술덤병은 “아무 일이나 대중없이 날뛰는 모양”을 가리키는데, 이는 물 위와 술 위를 덩뎡뎡 뛰어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 어쨌면 ‘물불 가리지 않고’보다 한수 위가 ‘물술 가리지 않고’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 일이 아니라 ‘이 일’에 날뛴 때에야 움직임은

고유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의 움직임이 마침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때 움직이는 말들은 비로소 멈출 수 있다. 걷던 발과 뛰던 마음은 그제야 진정된다.

어쩌면 우리가 시종 움직이고자 하는 이유는 잘 멈추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잠들기 직전 찾아오는 안락함처럼, 잘 멈추고 차분히 숨을 고르고 제대로 쉬기 위해 오늘도 이토록 빨빨거리며 움직인 것이다.

자유롭게 환상을 누비는 프랑크 소나타를 들으며

유윤중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오월의 신부’가 관용어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오월에는 결혼식도 많다. 바쁠 때는 일일이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른 지인을 시켜 축의금이나 선물을 전달할 때도 있다. 선물로는 무엇이 좋을까? 가전제품? 주방용품?

1886년 어느 아침,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는 작곡가 샤를 보르드로부터 꾸러미를 받았다. “이거, 세자르 프랑크 선생님이 전해달라고 한 선물이야. 오늘 못 온다고 하셨어.” “선물이라고?” 이자이는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새 바이올린 소나타의 악보였다.

이자이는 대충 악보를 읽어본 뒤 이 곡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느꼈을 것이다. 새신랑에게는 정신없는 하루였겠지만, 그는 보르드의 여동생으로 그와 함께 온

피아니스트 마리 레옹틴 보르드와 당장 연습에 돌입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새 소나타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곡의 공개 연주는 두 달 남짓 지난 뒤 통상의 연주회장이 아닌 브뤼셀 왕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역시 이자이와 마리 레옹틴 보르드의 연주였다. 곡을 연주할 시간이 되자 황혼이 내리고 연주회장은 어둠에 휩싸였지만 미술관 측은 “미술품 보호를 위해 조명은 안 된다”고 고집했다. 첫 악장에서는 어찌어찌 악보를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세 악장은 연습 때의 기억에 의존해야만 했다. 프랑크의 제자였던 작곡가 뱅상 당디의 회상이다.

프랑크의 소나타 A장조는 음반도 많이 나와 있고 음악 애호가들도 제법 좋아하는 곡이지만, 연주자들이 유독 이 곡을 더 사랑하는 편이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만든 곡이지만 첼리스트와 플루티스트도 원래 첼로나 플루트를 위해 쓰인 것처럼 즐겨 연주한다. 심지어 색소폰이나 튜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주자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주자들이 유독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곡에는 프랑크가 가진 고유한 장기가 꼭꼭 다지듯 집약되어 있다. 몇 가지만 들자면, 순환형식, 돌림노래, 잦은 조바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순환형식이란 앞의 악장에 나온 선율이나 동기(모티프)를 뒤의 악장에 다시 불러내는 것을 말한다. 약간 바뀌서 쓰거나,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사실 베를리오즈나 리스트를 비롯해 앞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곡가들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순환형식을 사용하면 처음엔 불분명했던 것들이 뒤로 갈수록 모이면서 통일되고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돌림노래는 더 설명하기 쉽다. 돌림노래는 사실 카논이라는 더 큰 양식의 일종이며, ‘가장 간단한 형태의 카논’으로 불리기도



한다. ‘파헬렐의 카논’으로 익숙한 그 카논이다. 한 주제가 나온 뒤 다른 사람들이 그 주제를 반복하거나 규칙에 따라 바꾸면서 화음을 맞춰 나가면 그걸 카논이라고 하고, 주제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대로 뒤쫓아가면 돌림노래다. 영어로는 ‘round’(빙빙돌기)라고 한다. ‘오리는 껍떡’,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같은 노래를 여러 명이 시간차를 두고 시작하면 화음을 이루면서 듣기 좋은 노래가 된다.

소나타 A장조의 마지막 4악장에서 프랑크는 이 돌림노래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아름다운 효과를 낸다. 피아노가 앞서가고, 바이올린이 쫓아간다. 프랑크는 자신의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돌림노래 또는 카논을 애용했다. 이 소나타와 함께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작품인 성가곡 ‘생명의 양식’이 대표적인 예다. 그의 다른 대표작인 교향곡 D단조, 교향시 ‘속죄’ 등에서도 돌림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 곡의 마지막 매력으로는 프랑크 특유의 잦은 조바꿈(전조轉調)을 들 수 있다. 프랑크는 섬세한 조바꿈을 통해

환상적인 효과를 내는 데 달인이었다. 앞에서 소나타의 공식 초연 장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작곡가 땡디는 스승 프랑크가 제자들이 제출한 작품에 몇 줄 동안 조바꿈이 나오지 않으면 작품이 단조롭다며 바로 주의를 줬다고 회상했다. 이런 자유로운 조바꿈 때문에, 연주자들은 프랑크의 곡을 연주할 때마다 마치 공중에 뜬 사다리를 확실히 갈아타는 듯이 자유롭고 환상적인 느낌이 든다.

필자는 대략 30년 전 이미 ‘왜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이 곡을 이렇게도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때 4월과 5월 두 달 동안 국내 첼리스트와 플루티스트 등 연주자 다섯 명, 그리고 내한해 공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이 이 곡을 연주했다. 몇몇 연주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한 플루티스트는 이 곡의 다채로운 조바꿈이 마치 프리즘으로 분할한 빛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첼리스트는 “멜랑콜리와 단순미가 훌륭히 혼합된 곡이다. 바이올린 악보 그대로 연주해도 기술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른 첼리스트는 “화음이 오묘하고 깊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곡을 초연한 이자이로 돌아가면, 그가 선물로 받은 바이올린곡은 이 소나타뿐이 아니었다. 그는 ‘명곡 헌정 반기의 역사’에서 챔피언으로 꿈을 만하다. 인상주의 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클로드 드뷔시가 자신의 유일한 현악 4중주곡을 이자이에게 헌정했고, 프랑스 국민주의 음악운동의 선구자인 카미유 생상스도 첫 번째 현악 4중주곡을 그에게 줬다.

왜 그가 유독 많은 작곡가로부터 작품을 헌정 받았을까. 작곡가들의 의도에 맞춰 작품을 해석해주는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자이 자신도 수많은 바이올린곡을 작곡해 다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줬다. 그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해 작곡한 여섯 곡의 소나타는

프랑크 소나타 실황이 궁금하다면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바이올린 리사이틀
5월1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외
한재민&알렉산더 말로페예프 듀오 리사이틀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프랑크 소나타 A장조(첼로 버전), 드뷔시 첼로 소나타 외

당대의 명바이올리니스트인 시게티·티보·에네스쿠·크라이슬러·크릭름·키로가의 연주스타일에 맞춰 썼고, 이들에게 각각 헌정했다.

이자이가 프랑크의 소나타를 처음 연주한 그 아름다운 날이 오월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글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은 오월 못지않게 아름다운 9월이었다. 대신 올해 5월 12일은 시대를 뛰어넘은 명바이올리니스트이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여섯 곡을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쓴 작곡가이기도 한 외젠 이자이의 타계 94주년이다. 이달에도 바이올린과 첼로를 비롯한 여러 연주자의 프랑크 소나타 A장조 연주가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을 높이는 판소리

송현민 음악평론가

소리꾼 이자람이 무대의 막을 올렸고, 관객은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판소리 공연 한 편을 봤는데, 유명 단편 소설 하나를 똑딱 읽은 셈이었다.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각색한



〈눈, 눈, 눈〉(4월 7일부터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이었다.

공연장에서 읽은, 러시아 문학

아마도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원작 소설을 주고 읽으라고 한다면 완독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자람이 펼쳐내는 소리 길을 따라 러시아의 시골로, 영화 28도의 추위가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다. 이자람이 들려주는 노래와 이야기가 어찌나 재밌던지, 관객들은 톨스토이의 문장에 마음의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한 편의 소설을 완독한 셈이다.

러시아 문학이 고전 중의 고전이라

할지라도, 막상 책장을 펼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유명하더라도 1권을 읽고, 2권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 놀랍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도 그렇다. 등장인물도 너무 많은 데다가, 이름도 어렵다. 주연의 이름을 명확히 외워 읽을 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복병이 등장한다. 하여, 주인공 이름을 머릿속에 새겨 넣는 집요한 암기력, 여러 등장인물이 저지르는 사건을 정리해나가는 명료한 정리력, 한 권을 돌파하고 다른 권으로 들어가는 의지력이 결합해야 비로소 러시아 문학의 ‘위대한 독자’가 탄생한다.

이자람은 이러한 난제를 파악했다. 러시아 문학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업 방식(?)도

명료하다. “이름이 어려우니 간단히 ‘바실리’라 하겠소!” 소설을 읽어가며 주인공의 캐릭터와 성격을 잡아가야 하는 독자의 수고도 덜어준다. “하인 니키타는 이러이러한 생김새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 요러 저러한 성격의 소유자요!”

톨스토이의 문장과 행간을 구워삶은 이자람 덕분에 공연장 ‘관객’들은 책을 펼친 ‘독자’가 됐다. 대한민국이 해마다 통계 내는 평균 독서량이 올라간 순간이었다.

소리 내어 읽어주는, 소리꾼

흔히 판소리 예술가를 소리꾼이라 부른다. 전통 성악가라고 하는데, 소리꾼이나 성악가나 노래를 부르는 음악가로 분류할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적 계보를 따라가면 조선 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다. 전기수란 재밌는 이야기책을 기묘한 숨씨로 읽어주는 이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설을 낭독하고 돈을 받는 이들이었으니, 조선판 버스커라고도 할 수 있겠다.

조선 후기 문인 조수삼의 글을 엮은 문집 『추재집 秋齋集』1939에는 전기수에 관한 기록이 전하는데, 이야기를 ‘파는’ 그들의 영업 방식은 지금 보아도 놀랍다. 당시에는 소설이 수적으로 증가하며 소비자가 늘었다. 너도나도 그 소설, 더 정확하게는 그 ‘이야기’ 들어왔다는 유행이 퍼졌을 것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드라마 봤나 못 봤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어느 날

전기수가 그 지역에 뜬다. 지금으로 따지면 OTT 플랫폼을 구독할 기희다. 목 좋은 곳에 앉은 그는 하나의 소설을 골라 읽는데, 조수삼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월초 1일은 첫째 다리 밑에 앉고, 2일은 둘째 다리 밑에 앉고, 3일은 배오개에 앉고, 4일은 교동 입구에 앉고, 5일은 대사동 입구에 앉고, 6일은 종루 앞에 앉는다. 이렇게 저슬러 올라갔다가 7일째부터는 그 길을 따라 내려온다. 내려왔다가는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달을 마친다. 다음 달도 또 그렇게 하는데 재미있게 읽어주기 때문에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싼다. 전기수는 책을 읽다가 아주 긴요하여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서는 문득 읽기를 멈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요전법(돈벌이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얼마만큼 재밌게 펼쳐내느냐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끊느냐도 중요했다. 과거 신문의 연재소설이나 공중파 드라마는 늘 중요한 순간에 끊어져, 다음 화를 기대하게 했다. 가판대에서 구매한 신문을 구입하자마자 연재 소설란을 제일 먼저 펼치는 사람은 이러한 상술에 기본 좋게 속은 사람들이었다.

전기電氣가 흐르는 곳마다, 전기수傳奇叟가 있다

오늘날의 소리꾼들은 전기수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의 전기수가 대본을 잘 골라야 했듯, 현재의 소리꾼도 재미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골라야 한다. 루리 작가가 2021년 펴낸 소설 『긴긴밤』도 2022년 판소리 <긴긴밤>으로 나와 독자를 관객으로 변신시켰다. 현대의 전기수 덕분에 문학사에서 잠을 털고 나온 소설도 있었다. 이자람이 연출한 주요섭의 단편 1925년 작 ‘살인’과 1936년 작 ‘추물’이었다. 이 외에 소리꾼 이승희는 김애란의 단편 ‘여보세요’, 판소리공장 바닥소리는 김탁환의 역사소설 ‘가시리’, 지기학은 황선미의 대표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 안이호는 임채묵의 단편 ‘야드’를 판소리로 만들어 소리꾼과 전기수의 계보를 맞닿게 했다.

현대판 전기수는 공연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기수는 ‘전기’가 흐르는 스마트폰, PC와 웹에도 존재한다. 책 한 권을 낭독해주는 콘텐츠 말이다. 현대인의 책 읽기 귀찮음과 교양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현대판 전기수들이다. 잠들면서 들으라고 고전 문학을 낭독하는 유튜브도 있고, 맨날 잠이 드는 바람에 앞부분만 10번 이상 들었다는 청취자와 댓글도 있다.

이처럼 독자들이 ‘묵독’으로 소비한 국내의 문학이 낭송자들의 ‘낭독’을 통해 다가온다. 책장을 펼치지 않아도, 단순히 보면 국내 평균 독서량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판소리-ASMR’도 일조하고 있다.

꽃피는 봄날이여, 영원하라

조상인 백상미술정책연구소장, 『살아남은 그림들』 저자

LG아트센터 서울로 향하는 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내려 안내판을 따라 전용 출입구로 들어서면 꽃이 사람보다 먼저 나와 반긴다. 애틋하고 아련한 봄꽃을 영원토록 묶어둔 곳. 지하 2층에서 극장 1층 로비까지 이어지는 계단 ‘스텝 아트리움’이다. ‘환승 계단’이라 불려도 좋을 곳이다. 부대끼던 일상을 벗어나 여기서부터 예술의 공간이 시작되니까.

자유롭게 핀 야생화처럼, 3층 객석까지 탁 트인 층고 24미터의 공간을 차지한 스무 송이의 꽃은 네덜란드의 작가 듀오 스튜디오 드리프트Studio DRIFT의 작품 〈메도우Meadow〉다.

꽃이 스르르 벌어졌다 이내 오프라든다. 피고 지는 꽃은 저마다의 속도를 가진다. 얼른 피어 빨리 저무는 꽃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디 피어 오래 버티는 꽃도 있다. 여수 오동도, 거제 지심도에 동백꽃 필 무렵이 한반도 봄의 시작이다. 남풍이 매화를 터뜨리고,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면 벌써 3월 중순이다. 왕족처럼 고고한 목련은 크고 화려하게 피지만 권력자의 뒷모습인 양 처절하게 떨어진다. 재잘대는 개나리, 고운 진달래가 아쉬워질 때쯤 벚꽃이 흐드러지고 그렇게 봄날은 간다. 붙잡을 수 없는 봄이 이곳 LG아트센터 서울에서만은 영원하다.

거꾸로 매달린 꽃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해 움직인다. 작가들이 꽃의 수면 운동에서 착안했다. 꽃은 밤낮의 길이와 주변의 온습도에 반응해 동물의 호흡처럼 스스로 개폐 활동을 한다. 움직임이

미세하고 느릿한 데다 주로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 일어나는 일이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드리프트’는 로네커 호르데인과 랄프 나우타가 네덜란드 명문 예술학교인 에인트호번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만나 2007년 결성한 팀이다. 이들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공학적 설계를 더해, 움직이는 조각인 키네틱 아트를 만들어낸다. 작가들이 꽃의 움직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도우〉를 처음 구상한 것은 2006년이지만 팀을 결성하고 기술적 완성을 이루기까지 꼬박 8년이 걸렸다고 한다.

하늘거리는 스커트를 입고 깡충 뛰어다니다 폴짝 내려앉을 때의 필력임처럼 꽃이 옷을 닮았다. 실크로 꽃잎 형태를 만드는 데 100회 넘는 레이저 절단과 40시간 이상의 손바느질이 필요했으니, 흙이 꽃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묵묵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어떤 꽃은 다른 꽃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 어떤 꽃은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 속살을 드러낸다. 그 움직임을 감상하며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느껴봐도 좋겠다. 자연에서 온 속도감이라 희한하게 맞아떨어진다. 몰입감 높은 작품이라 이른바 ‘꽃멍’ 하기도 좋다.

〈메도우〉는 전 세계 여러 미술관에서 다양하게 전시된 적 있지만 이곳 LG아트센터 서울의 작품에는 특별함이 추가됐다.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생태수목원 화담숲에서 자라는 우리 토종 꽃 7종의 색을 작품에 반영한 것. 미선나무와 남산제비꽃의 흰 빛, 탐라산수국의 백자색, 섬기린초의 연노랑과 진달래의 분홍, 꽃창포의 보라색과 두메부추의 자주색이 은은한 색감의 원천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걸어 오르면 꽃잎이 활짝 벌어졌을 때 그 안의 빛이 햇살처럼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LG아트센터 서울은 강남에서의 22년 역사를 접고 2022년 10월 지금의 강서구 마곡동에서 재개관했다. 공연장 건물은 세계적 건축 거장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 노출 콘크리트와 투명 유리로 이뤄진 건물은 안도의 시그니처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 외관이다. 매달린 꽃 작품이 매혹적인 스텝 아트리움이 건물 아래위를 수직적으로 연결한다면, 1층 로비를 관통하는 80미터 길이의 터널 ‘튜브’는 남북을 수평으로 잇는 개념이다.

건축가는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으면서 튜브 공간만 나무로 조성했다. 폭이 어른 엄지손가락 길이만 한 나무를 15도 정도 기울여서, 13.8미터 높이의 길쭉한 타원형

단면을 촘촘히 채웠다. 큰 고래의 갈비뼈가 느껴지는 뱃속에 들어앉은 듯, 신비로운 분위기와 엄마 뱃속 같은 안온함이 동시에 느껴진다. 나무가 흡음재처럼 주변 소음을 짙 빨아들여 비현실적인 고요를 느낄 수 있다.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떨어지는 남의 발소리가 남긴 여운이 길게 늘어진다. 끝나버린 공연의 아쉬움을 오래 붙들 수 있는 묘한 공간이다.

LG아트센터 서울의 설계자 안도 다다오는 처음 마곡 땅을 방문했을 때 방대한 대지와 자연에 감탄했다고 한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고층 빌딩 직선 사이에 나지막이 곡선이 살아 있는 건축으로 이어졌다. 자연 안에 예술이, 그 안에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 됐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EPILOGUE

편집부 새 식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18개월간 [문화+서울]을 발간해 온 안미영 대리님을 잘 보내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필자로, 독자로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SAY HELLO

9년 만에 [문화+서울] 담당자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에도, 2025년에도 여전히 좋은 분들과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혜린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GOOD-BYE

좋아하는 대리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응원합니다!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IN THE END

책을 좋아하던 사람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 1년 반 동안 [문화+서울]과 함께 했습니다. 돌아보니 잡지의 세계에 첫발을 들인 이후 제게 남은 건 18권의 책이 아니라 그 너머의 사람들이었네요. 언제나 담당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팀장님, 담당자는 박수밖에 칠 게 없을 정도로 매번 완벽한 사진으로 지면을 빛내주신 사진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저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네요"라는 재작년 겨울 첫 기획회의에서의 다짐을 지금까지도 매번 일깨워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돌아보면 모든 기억이 즐겁기만 하도록 만들어준 이끼 식구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의 [문화+서울]을 잘 이끌어줄 든든한 새 담당자님을 믿으며 저는 [문화+서울]을 가장 사랑하는 독자로 돌아갑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지금까지처럼 저희 책을 항상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노들섬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블루스퀘어 상명아트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 본관/대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장예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2025년 서울연극창작센터

연극인오피스 입주 수시공모



접수기간

2025. 5. 7. 수

오전 10:00

5. 13. 화

오후 5:00

접수방법

서울문화예술
지원시스템(SCAS) 접수

문의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창작센터
02-758-1606
stcc2024@sfac.or.kr

